성 효 용 지도교수

석사학위 청구논문

중국내 FDI 결정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2007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박 민 숙

중국내 FDI 결정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성효용 지도교수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박 민 숙

인 준 서

박민숙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중국은 1979년부터 “개혁·개방”을 시작한 이후 점진적으로 경제를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해 왔으며 이런 과정에서 자본 및 기술부족이라는 내부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꾸준히 추진해왔다. 중국뿐 아니라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외국인 직접투자가 자국에 자본, 기술 및 경영노하우를 제공함과 동시에 장·단기적으로 경제성장을 가져다준다고 보고 있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와 같은 영향으로 중국은 개혁·개방이래 세계 3대 외국인 투자유치대국으로 변하였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하여 외국인 직접투자 결정요인을 중국 29개의 성시(省市)를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등소평 사후의 정치적 불안정 및 여러 가변적인 요소를 고려하기 위해 1999년을 시작으로 가장 최근의 자료를 이용한 2004년까지를 조사기간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조사기간(1999-2004년)동안 對중국 FDI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을 알아보고, FDI유입에 큰 변화를 영향을 미치게 될 요인이라고 예상되는 중국의 WTO가입을 기준으로 샘플기간을 나누어 FDI결정요인을 검토하여 보았다. 검토결과 조사기간(1999-2004년)기간 동안 각 성시(省市)의 GDP는 예상한 바와 같이 양(+)의 매우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임금의 경우도 1%의 수준에서 예상한 바와 같이 음(-)의 매우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높은 임금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중국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결정요인에 있어서 저렴한 임금이 중요한 유인으로 작용하였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인프라시설의 경우 외국인 직접투자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예상한 바와 같이 중요한 요인임을 보였다. 그 외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 해안개방도시와 경제개발구가 외국인 직접투자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 각각의 샘플기간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샘플

기간(1999-2000) 그리고 제2샘플기간(2001-2004년)의 결과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임금은 예상대로 전 기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WTO가입을 기준으로 나눈 각각의 샘플기간에도 여전히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성시(省市)의 GDP는 모든 샘플기간들에서 FDI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WTO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피고용자의 학력수준의 경우 조사기간(1999-2004년)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샘플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정도를 나타낸 수입액의 경우 제1샘플기간에는 양(+)의 효과를 가졌지만 제2샘플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왔다. 그리고 국가급 개발구 및 해안개방도시의 경우 여러 가지 정책적 투자유인으로 FDI유입에 강력한 영향력을 가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조사기간에 걸쳐 여전히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 차

제1장 서 론 ····· 1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 1
(1) 문제제기 ····· 1
(2) 연구의 목적 ····· 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구성 ····· 3

제2장 對중국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 5

제1절 중국의 경제현황 ····· 5
(1) 수출입 현황추이 ····· 7
(2) 주요산업 ····· 10
(3) 물가수준 ····· 11
제2절 지역별 주요지표 ····· 13
제3절 對중국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 17
(1) 對중국 외국인투자 유치 현황 및 특징 ····· 17
(2) 외국인투자 유치제도의 변화 ····· 28

제3장 외국인 직접투자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적 고찰 ··31

제1절 외국인 직접투자의 이론체계 ·····31
(1) 외국인 직접투자의 개념 ·····31
(2) 외국인 직접투자의 결정요인 ·····32
(3)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형 ·····35
제2절 외국인 직접투자의 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36

제4장 실증분석 ·····41
제1절 자료 및 분석방법 ·····41
(1) 조사대상 및 변수선정 ·····41
제2절 실증분석 ·····44
(1) 분석모형 ·····44
(2) 분석결과 ·····45

제5장 결 론 ·····50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차

<표 1> 주요국의 GDP순위 비교 ····· 6
<표 2> 중국경제에서 차지하는 외자기업의 비중 ····· 7
<표 3> 중국의 나라별 수출입현황 ····· 8
<표 4> 대외무역 총액비교 ····· 9
<표 5> 고정자산추이 ····· 11
<표 6> 중국의 주요 물가 추이 ····· 12
<표 7> 중국경제 주요지표 ····· 12
<표 8> 중국의 주요 지역별 1인당 GDP ····· 13
<표 9> 동·중·서부 지역 고정자산 투자 ····· 14
<표 10> 11차 5개년 <건의안>에 제시된 지역협력 정책 ····· 15
<표 11> 동북3성과 서부지역의 주요지표비교 ····· 17
<표 12> FDI유입 현황 ····· 22
<표 13> FDI유치 순위비교 ····· 23
<표 14> 산업별 외자이용현황 ····· 24
<표 15> 2005년 외국인 직접투자액 성·시·구 순위표 ····· 27
<표 16> 중국에 투자한 나라별 현황 ····· 28
<표 17> 중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분야별 소득세율 우대 현황 ····· 29
<표 18> 외국인투자 결정요인의 내용과 특성 ····· 34
<표 19> 외국인 직접투자의 효과 ····· 35
<표 20> 외국인 직접투자 결정요인변수 ····· 43

<표 21> 주요변수들의 기초통계량 ····· 46
<표 22> 투자결정요인 추정결과 ····· 47
<표 23> 투자결정요인 추정결과(샘플기간구분) ····· 49

그림 목차

<그림 1> 중국의 GDP 규모와 경제성장률 추이 ····· 5
<그림 2> 중국의 연도별 수출입현황 ····· 8
<그림 3> 중국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외자기업의 비중 ····· 10
<그림 4> 국가급 경제개발 주요경제지표비교 ····· 20
<그림 5> 중국의 외자이용 현황 ····· 21
<그림 6> 형태별 외자이용현황 ····· 25
<그림 7> 지역별 외국인투자현황 ····· 26

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1) 문제제기

중국은 1979년부터 자급자족의 폐쇄정책을 포기하고 경제개방에 착수하면서, 세계경제와 원활한 유대를 통하여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경제전반에 걸친 개혁 속에 대외개방을 선언하고 여러 형태의 외자도입(外資導入)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1992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외국인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 FDI)[1] 는 국내의 자금부족[2]을 해결해 주었다. 이에 중국 정부가 의욕적으로 시장지향 경제개혁을 실시하고 외국인투자법을 재정비하면서 당해 FDI유입액이 110억 달러, 1993년에는 280억 달러를 기록하며 150%의 비약적인 성장률을 기록하게 되었다. 중국으로 유입된 FDI는 첨단기술과 선진 경영방식의 이전을 통해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중국의 외자도입(外資導入)정책은 주로 경제특구와 연해개방도시, 연해경제개발구, 내륙경제구라는 개발지구에 따라 외자(外資)에 우선권을 주어왔다. 그러나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도입과 경제체제개혁의 심화에 따라 외자도입(外資導入)정책을 재조정할 필요가 제기되어, 초기의 양적 확대에 치중해온 노동집약적 경공업 중심의 투자유치정책은 무분별한 경쟁을 유발하면서 경기과열을 조장하고 산업구조의 왜곡을 심화시켰다. 또한 연해지역 우대정책은 지역발전의 격차를 확대시켰다. 또한 노동집약적 소규

1) 해외직접투자는 영어로 표기하면 Foreign Direct Investment(FDI)라고 한다. FDI에는 무역이 수출과 수입으로 구성되듯이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는 투자, 즉 Outward FDI와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투자, 즉 Inward FDI가 있다. 과거에는 FDI라고 하면 Outward FDI로 인식하고 용어를 먼저 사용하였기 때문에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투자를 특별히 이와 구별하여 외국인 직접투자(Inward FDI)라고 부르게 되었다.

2) 潘镇(2005), 张东山 外(2006)

모 투자기업들을 중심으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따른 노사분규가 빈발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대규모 외자도입(外資導入)이 통화팽창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인플레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1994년 이후부터 외자기업[3](外資企業)에 대한 회계, 재무감사 실시, 노동조건 강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산업정책과 외자유치(外資誘致)정책의 연결 하에 선별적인 외자유치를 통한 외국인투자구조의 질적 고도화를 추진해 오고 있다. 1990년대 후반 FDI증가율의 소폭 하락으로 외국인투자가 위축되는 듯 보였으나 2001년의 중국의 WTO가입으로 연평균 10%의 성장률을 회복했으며, 2001-2003년까지 세계적으로 FDI가 가파른 하락세였음에도 중국은 꾸준한 증가율을 보였다. FDI유입에 따르는 부정적 견해[4]도 있으나, 중국의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과 고도의 경제성장에 따른 잠재시장으로의 부상으로 외국기업들은 장기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투자를 계속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중국은 세계경제의 급속한 세계화(globalization)로 진전되는 가운데 연간 10%대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고도의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2001년 WTO가입과 2008년으로 예정된 북경올림픽 개최로 대외교역정책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정책, 산업정책으로도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 중국경제 성장에 기여한 외자기업(外資企業)에 대한 논의가 최근 들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이렇듯 발전·변화하는 중국경제에 있어서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정책과 변화를 살펴보고, 투자결정요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2006년 중국으로 유입된 FDI 규모는 630억 달러로 추정되며 이러한 외자(外資)의 유입에 힘입어 외자기업(外資企業)의 노동생산력은 국내기업의 9

3) 중·외 합자기업, 중·외 합작기업, 독자기업을 일컬음
4) 潘镇(2005), 박현정(2006)

배, 수출의 50%, 수입의 60%, 전체 산업생산량의 30%를 차지해 중국의 10%대 고성장을 견인하였다.[5] FDI의 유입에 의해 중국은 그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외국인투자 기업들은 여러 방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점차 확대하며 중국 경제성장에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6] 외국인투자 기업의 선진화된 운영체계는 국내기업의 운영방식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쳐 국내기업의 국제화 및 수출증대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에도 공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7] 이와 같은 영향으로 중국은 개혁·개방이래 세계 3대 외국인 투자 유치대국으로 변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 29개의 성시(省市)를 기준으로 하여, 1999-2004년까지 FDI의 결정요인을 살펴볼 것이다. FDI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로 지만수(2002)는 1994-2002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최원익(2006)은 1998-2003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FDI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들 각 연구는 2002년 혹은 2003년까지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최신 자료를 이용하여 변화를 측정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분석의 대상 시기를 이용 가능한 2004년까지로 확장하여 결정요인과 그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중국은 2001년 11월 WTO가입 이후에 FDI유입이 급속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에 샘플기간을 2001년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WTO 가입이 FDI유입의 결정요인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와 구성

본 연구는 1979년 개혁·개방이래 중국의 외자(外資)이용현황과 추이를 살

5) 수은해외경제(2007. 2)
6) 박현정(2006)
7) 潘镇(2005)

펴보고자 한다. 조사기간은 등소평 사후의 정치적 불안정 및 여러 가변적인 요소를 고려하기 위해 1999년을 시작으로 하여 가장 최근의 자료를 이용한 2004년까지로 하였다. 동부지역(북경, 천진, 하북, 요녕, 상해, 강소, 저장, 복주, 산동, 광동, 해남), 서부지역(귀주, 섬서, 감숙, 청해, 사천, 중경, 운남, 영하, 신강위구르, 내몽고, 광서장족, 서장), 중부지역(산서, 길림, 흑룡강, 안휘, 강서, 하남, 호북, 호남)[8]으로 분류하여 지역별 외자(外資)이용현황을 살펴보고, 실증분석을 통해 중국 29[9]개 성시(省市)을 대상으로 FDI 주요결정요인을 살펴볼 것이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과 범위를 설명하고, 제2장에서는 對중국 외국인 직접투자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본다. 먼저 중국의 전반적인 경제현황과 외국인투자 유치현황을 제도와 함께 살펴볼 것이다. 제3장에서는 외국인 직접투자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를 살펴볼 것이다. 제4장에서는 임금, 각 지역의 GDP, 수입 등의 변수들이 외국인 직접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중국경제에 미친 효과를 요약·정리함으로써 앞으로의 외국인 직접투자의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

8) 지만수(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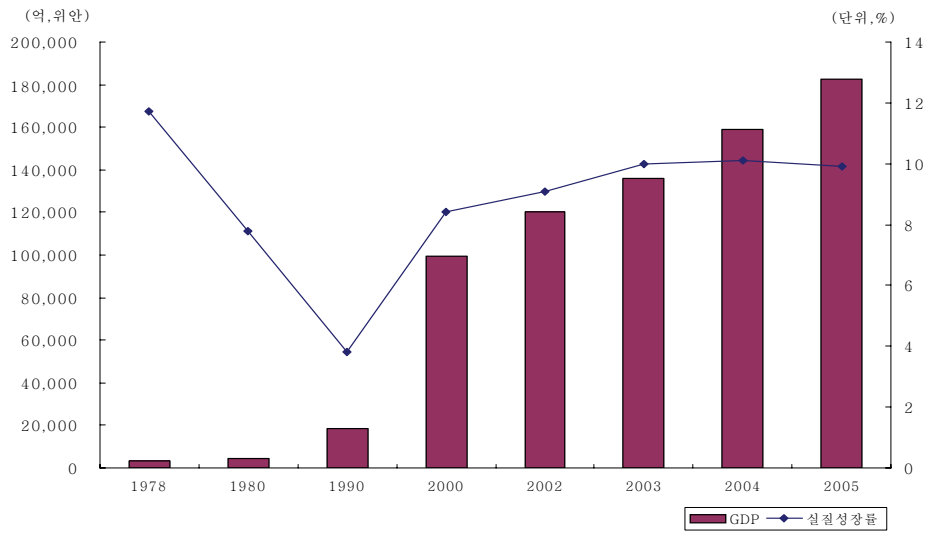
9) 중국의 31개 성시(省市)는 22개의 성, 4개 직할시(북경, 천진, 상해, 중경), 그리고 5개 자치구(내몽고, 광서장족, 서장, 영하회족, 신강위구르)를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기간동안 자료가 일정치 않은 서장지역과 청해성을 제외한 29개의 성시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제2장 對중국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제1절 중국의 경제현황

2003년 이후 4년 연속 10%를 상회하는 경제성장률을 시현하며 2006년 중국의 무역규모는 1조 7,607달러(약 1,650조)에 달해 전년대비 24%증가했으며 수출은 9,691억 달러로 27%, 수입은 7,916억으로 20%증가했다. 또한 정부의 거시경제 조정정책에도 불구하고 2006년 상반기 고정자산투자액(4조 2,371억 위안)은 전년 동기 대비 29.8% 증가했다.[10] 중국은 현재 제11차 계획(2006-2010년)의 실시하에 5개년 계획이 끝나는 2010년 1인당 GDP를 2000년의 2배인 1,600-1,700달러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균형과 분배를 강조하면서 경제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림 1> 중국의 GDP 규모와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www.kita.net(중국경제 DB)

10) 수은경제(2007. 2)

<그림 1>에서 보면 개방 초기인 1979년에 4,546억 위안이었던 중국의 GDP규모는 지속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면서 2000년에는 99,215억 위안으로 개방초기의 20배 가까운 GDP규모를 나타냈다. 또한 2003년 이후 4년 연속 10%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면서 2005년에는 182,321억 위안으로 높은 GDP성장을 나타냈다.

<표 1> 주요국의 GDP 순위 비교

(단위: 억 달러)

순위	2001년			2005년		
	국가	GDP	비중(%)	국가	GDP	비중(%)
	세계총합	315,750	100	세계총합	443,849	100
1	미국	100,759	31.9	미국	124,551	28.1
2	일본	41,624	13.2	일본	45,059	10.2
3	독일	18,913	6	독일	27,819	6.3
4	영국	14,313	4.5	중국	22,289	5
5	프랑스	13,398	4.2	영국	21,926	4.9
6	중국	13,248	4.2	프랑스	21,102	4.8
7	이탈리아	10,904	3.5	이탈리아	17,230	3.9
8	캐나다	7,051	2.2	스페인	11,237	2.5
9	멕시코	6,221	2	캐나다	11,152	2.5
10	스페인	6,084	1.9	브라질	7,941	1.8

자료: KOTRA(2006)

<표 1>에서는 전 세계의 GDP 순위를 보여주고 있다. 2001년에는 미국이 전 세계 GDP에 31.9%인 100,759억 달러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일본이 13.2%인 41,624억 달러, 독일이 6%인 18,913억 달러를 보이고 있다. 2001년 중국은 전 세계 GDP의 4.2%인 13,248억 달러로 6위를 차지하고 있다. 2005년의 순위를 비교해 보면 역시 미국이 전 세계 GDP의 28.1%인 124,551억 달러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일본이 10.2%인 45,059억 달러, 독일이 6.3%인 27,819억 달러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01년과 비교하여 크지 않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순위를 비교해보면 2001년에 6위에서 2005년에 4위로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2005년 중국의 GDP규모는 22,289

억 달러로 2001년에 비해 2배에 가까운 증가를 보였으며, 비중도 4.2%에서 5%로 증가했다.

<표 2> 중국경제에서 차지하는 외자기업의 비중(2005년)

구분	공업부가치총액	세수	수출입	도시취업자수	기업 수
비중	30%이상	20%	60%	11%	3%

자료: 박현정(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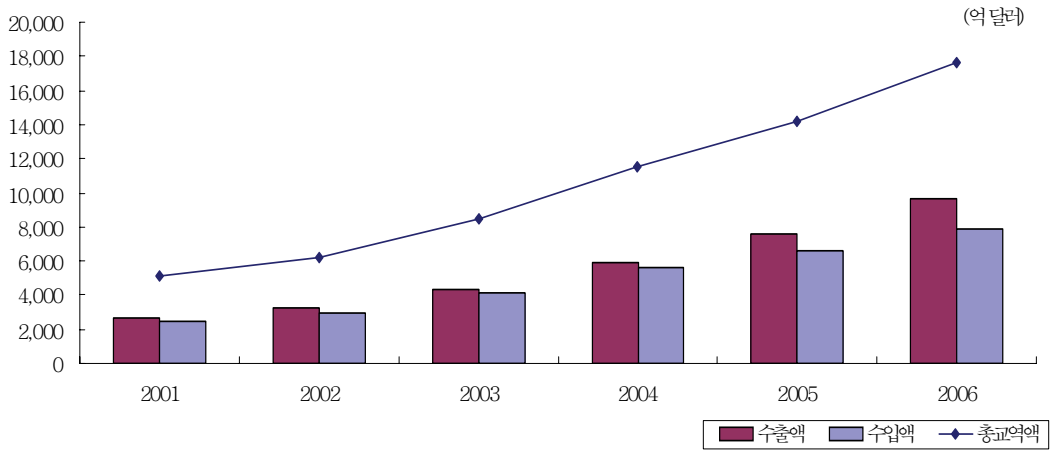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통해 중국은 그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표 2>에서는 외자기업(外資企業)들은 공업생산액, 공업 부가가치총액, 영업이익, 세수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점차 확대해가며 중국경제성장에 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외자기업(外資企業)은 R&D 센터 건립, 인재 양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중국기업의 기술 수준을 제고 시켰으며,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수출 증가는 물론 수출상품의 고도화, 중국의 취업난 해결에도 외자기업(外資企業)이 기여를 하고 있다.

(1) 수출입현황 추이

2006년 중국의 대외무역규모는 1조 7,606억 달러로 전년대비 23.8% 증가해 5년 연속 20%이상의 성장을 지속했다. <그림 2>에서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의 연도별 수출입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대외무역규모는 2005년에 비해 약 3,388억 달러 증가했으며, 수출은 9,691억 달러로 전년대비 27% 증가했으며, 수입은 7,916억 달러로 전년대비 20%상승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6년 수출이 5,494억 달러로 28.8%증가(중국 전체 수출 증가율을 1.6%p상회), 중국 전체 수출의 56.7%를 차지했다. 그중에서도 기계설비의 수출이 1,866억 달러로 24.7%증가했으며, 전기 및 전자제품의 수출액은 2,275억 달러로 32%증가했다. 하이테크제품의 수출액은

2,815억 달러로 29% 증가해 중국 전체 수출증가율을 1.8%p 상회했다.[11)]

<그림 2> 중국의 연도별 수출입현황



자료: 중국통계연감(2006), 한국무역협회(2007)
주: 2006년도 통계수치는 한국무역협회(2007)

<표 3> 중국의 나라별 수출입 현황

(단위: 억 달러)

순위	나라	1-2월	동년대비(%)	비중(%)	비중변화(%)
	합계	2978.1	31.6	100	0.0
1	EU	510.8	42.7	17.2	1.4
2	미국	438.6	32.2	14.7	1.4
3	일본	334.9	22.4	11.2	0.0
4	아세안	276.8	30.0	9.3	-0.9
5	홍콩	243.5	24.7	8.2	-0.1
6	한국	227.4	25.8	7.6	-0.4
7	대만	165.9	12.8	5.6	-0.9
8	오스트리아	62.7	40.6	2.1	0.1
9	러시아	60.4	39.6	2.0	0.1
10	인도	52.3	68.9	1.8	0.4

자료: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www. mofcom.gov.cn, 2007)

11) 이승신(2007)

2007년 중국의 나라별 수출입 현황을 <표 3>에서 살펴보면 유럽연합이 510.8억 달러로 동년대비 42.7% 증가해 전체비중에 17.2%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미국이 438.6억 달러, 일본이 334.9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27.4억 달러로 6위를 차지해 전체 비중의 7.6%를 차지하고 있다.

<표 4> 대외무역 총액비교

(단위: 억 달러)

순위	2001년			2005년		
	국가	무역총액	비중(%)	국가	무역총액	비중(%)
	세계총합	126,660	100	세계총합	211,460	100
1	미국	19,083	15.1	미국	26,370	12.5
2	독일	10,578	8.4	독일	17,448	8.3
3	일본	7,526	5.9	중국	14,219	6.7
4	프랑스	6,520	5.2	일본	11,118	5.3
5	영국	6,057	4.8	프랑스	9,550	4.5
6	중국	5,097	4	영국	8,791	4.2
7	캐나다	4,872	3.9	네덜란드	7,592	3.6
8	이탈리아	4,807	3.8	이탈리아	7,465	3.5
9	네덜란드	4,395	3.5	캐나다	6,797	3.2
10	홍콩	3,931	3.1	벨기에	6,500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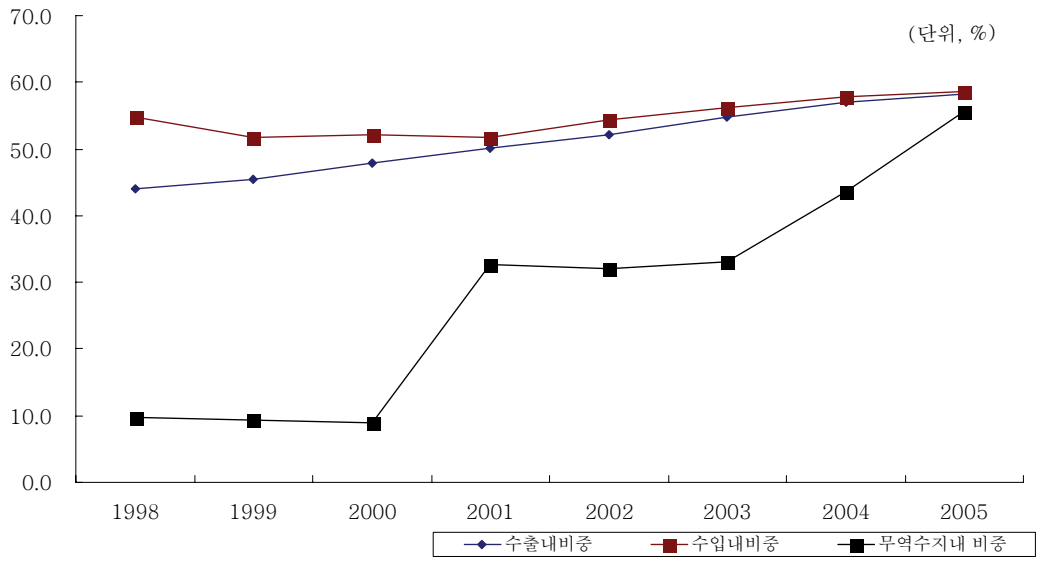
자료: 중국통계연감(2006)

<표 4>에서 보면 2005년 중국 대외무역 수출입 총액은 1조 4,219억 달러로 2001년 대비 1.8배 성장하였고, 세계에서는 미국과 독일 다음으로 세계 3위를 차지했다. 전 세계 무역 수출입 총액 중 비중은 2001년 4%에 비해 6.7%로 상승하였다. 지속적인 대외개방과 수출입 무역의 신속한 성장으로 외화저축부문도 빠르게 성장하였다. 1990년 말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한 11억 달러에 이르렀다. 1996년 말에는 1,000억 달러를 돌파하여 1,051억 달러에 달하였으며, 2001년 말에는 2,000억 달러를 초과하여 2,121억 달러에

달하였고, 2005년 말에는 8,189억 달러에 달하였다.

무역수지 흑자 내 비중은 WTO가입 후에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림 3>은 중국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외자기업(外資企業)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1998년 무역수지 비중은 9.7%이다. 2000년까지 비중은 9%를 유지하였던 것이 2001년 32.7%로 급격히 상승하였으며 2005년 55.6%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수출의 비중은 하이테크 산업의 경우 외자기업(外資企業)이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2005년 기준)은 각각 87.3%와 77.6%에 달하고 있다.

<그림 3>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외자기업의 비중



자료: 박현정(2006)

(2) 주요산업

산업별 성장률을 보면 1차 산업 5.0%, 2차 산업 12.5%, 3차 산업 10.3%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의 투자억제정책으로 2006년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전년대비 2%p 하락한 24%증가했으며, 연초 목표치 대비 6%p 높

은 수준을 주지했다.'11·5계획' 실시 첫해였던 2006년 도시지역에 대한 투자는 9조 3,472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2.7%p 하락한 24.5% 증가한 반면, 농촌지역에 대한 투자는 전년대비 0.5%p 상승한 19.9%p 증가하였다. 이는 신 농촌 운동 건설을 위한 농촌지역에의 투자 확대노력과 도·농간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12]. 2006년 고정투자자산은 109,890억위안으로 2005년에 비해 24.0%증가했다는 것을 <표 5>에서 보여주고 있다.

<표 5> 고정자산투자 추이

(단위: 위안, %)

	2002	2003	2004	2005	2006
고정투자자산	43,500	55,567	70,477	88,774	109,870
(증가율)	(16.9)	(27.7)	(25.8)	(26.0)	(24.0)
도시	35,489	45,812	59,028	75,095	93,472
농촌	8,011	9,755	11,449	13,679	16,398

자료: 이승신(2007)

(3) 중국의 물가수준

중국의 2006년 소비시장 규모는 7조 6,41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0.8%p 상승한 13.7%로 증가했다. 이는 2004년 13.3%에서 2005년 12.9%에 이어 2006년 13.7%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석유 및 석유관련 제품(36.2%), 자동차(26.3%), 건축자재(24%), 통신설비(22%)의 소비호재를 보였다. <표 6>에서는 주요 소비물가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 2006년에는 식품가격의 안정세, 원자재·연료 구입가격 상승의 둔화에 따른 공산품 출하가격 상승세 둔화로 전년대비 0.3p% 하락한 1.5%를 기록했다.

12) 이승신(2007)

<표 6> 중국의 주요 물가 추이

	2002	2003	2004	2005	2006
소비자물가(CPI)	−0.8	1.2	3.9	1.8	1.5
(식료품가격 상승률,%)	(−0.6)	(3.4)	(9.9)	(2.9)	(2.3)
원자재, 연료구입가격(%)	−2.3	4.8	11.4	8.3	6.0
공산품 출하가격(%)	−2.2	2.3	6.1	4.9	3.0
고정자산 투자가격(%)	0.2	2.2	5.6	1.6	1.5

자료: 이승신(2007)

<표 7>에서 보이는 중국경제 주요지표를 정리하면, 2005년 말 중국의 GDP는 183,085억 위안으로 2003년 이후 4년 연속 10%를 상회하는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고정투자자산은 2001년 이후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05년에는 전년대비 26%증가해 88,604억 위안를 나타냈다. 총무역액과 외국인투자 역시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위안화 환율은 2005년 7월 환율개혁이후 탄력성이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05년 말 외환보유액은 무역흑자 확대와 외국인투자 유입으로 2004년보다 34.3% 증가해 8,189억 달러를 기록했다.

<표 7> 중국경제 주요지표

항목	2001	2002	2003	2004	2005
GDP(억 위안)	109,655	120,333	135,823	159,878	183,085
GDP증가(%)	8.3	9.1	10	10.1	10.2
실질GDP성장율(1인당, %)	7.5	8.40	9.3	9.4	9.3
고정투자자산(억 위안)	37,213	43,500	55,567	70,477	88,604
(증가율)		(16.9)	(27.7)	(26.8)	(26.0)
총무역액(억 달러)	5097	6208	8510	11546	14,219
외국인투자액(백만 달러)	497	550	561	641	638
환율(원/백 달러))	827.7	827.7	827.7	827.7	819.17
외환보유고(억 달러)	2,122	2,864	4,033	6,099	8,189

자료: 중국통계연감(2006), www.kita.net(중국경제 DB)

제2절 지역별 주요지표 비교

중국의 1인당 GDP는 2000년 말 875달러로 1,000달러에도 미치지 못했으나 연평균 9%가 넘는 성장률을 지속 2005년에는 1,740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07년에는 2,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1인당 GDP가 2,000달러는 중국 전역의 평균치이다. 지역별 경제편차가 큰 중국에서 빈곤층의 대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농촌인구가 약 7.5억 명(전체인구의 약 57%)이라는 점, 그리고 도시·농촌 간 평균소득 격차가 3.3배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주요 대도시의 1인당 GDP는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이다.

<표 8> 중국 주요지역별 1인당 GDP(2005년)

(단위: 달러)

상해시	북경시	천진시	절강성	강소성	광동성	산동성
6,613	5,698	4,517	3,509	3,143	3,035	2,568
요녕성	복건성	흑룡강성	길림성	중경시	해남성	귀주성
2,439	2,386	1,855	1,712	1,411	1,387	669

자료: KIEP(2007)

<표 8>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중국이 경제를 평가할 때, 발전한 연해지역(상해, 강소 등)만 본다거나 혹은 낙후된 서부지역(중경시, 귀주성 등)만을 보고 평가 한다면, 이는 중국에 대한 올바른 접근이 아닐 것이다. 또한 이렇게 상이한 경제적 차이를 보이는 지역의 특징을 무시한 채 평균적으로 중국의 경제를 살펴보는 것 역시 옳은 연구 방향은 아닐 것이다. 때문에 여기서 중국의 지역별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된다.[13] 중국은 국토가 광대하여 각 지역의 자연환경에도 큰 차이가 있고, 지역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의 수준에도 큰 차이가 있다. 이 중 투자환경에 있어 보다 결정적인 의의를 갖는

13) 지만수(2002)

것은 사회간접자본의 수준인데, 이는 원활한 교통망과 통신시설은 공장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데서 뿐 아니라 제품을 운반하고 판매하는 데서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된다. 즉 사회간접자본의 수준은 생산 환경으로서 뿐만 아니라 시장 환경의 토대가 되는 투자환경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표 9> 동·중·서부 지역 고정자산 투자

	1995년(억 위안)	2000년(억 위안)	2004년(억 위안)
동부지역 (비중, %)	12,188 (65)	14,015 (60)	40,242 (58)
중부지역 (비중, %)	4,121 (22)	5,432 (23)	15,126 (22)
서부지역 (비중, %)	2,387 (13)	3,943 (17)	13,749 (20)

자료: KOTRA(2005.11)

<표 9>에서 동·중·서부 지역의 고정자산투자액을 살펴보면 동부지역에 고정자산 투자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995년 동부지역의 고정자산투자액은 12,188억 위안으로 전체에 65%를 차지했다. 이에 반해 중부지역은 4,121억 위안으로 22%, 서부지역은 2,387억 위안으로 13% 차지했다. 투자액에서는 동부지역에 비해 중부지역과 서부지역의 금액은 적지만 10년 사이에 투자액이 현격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살펴보자. 중국은 1953년 제1차 계획을 수립한 이래 5년마다 경제계획을 설정하고 그 틀에 따라 경제를 운용한다. 따라서 5개년 계획은 중국경제의 방향을 가늠하는 핵심내용을 담고 있다. 거시경제의 발전에 있어서 균형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표 10> 제 11차 5개년 <건의안>에 제시된 지역협력 정책

지역	주요전략
동부	- 자주 혁신 능력제고, 경제구도 고도화 및 경제성장방식 전환, 대외개방 확대, 국제 경쟁력 제고 - 동부지역 우선 발전을 통한 중서부지역의 발전선도
중부	- 식량 산지 건설 에너지 및 제조업 산업 육성 - 사회기반시설 건설과 현대적 시장체계 형성
서부	- 사회기반시설 건설 및 생태환경 보호 강화, 자원개발 - 과학교육 발전, 인재육성, 특성산업 육성을 통한 자기발전 능력 강화
동북	- 산업구조조정과 국유기업 개혁 추진 - 장비 제조업과 현대농업의 육성발전

자료: KIEP(2005)

<표 10>에서 보면 2006년 초 전국인민대표회의 (제10기 4차회의)에서 통과된 11차 5개년 경제 및 사회발전 규획(2006-2010년)에 의하면 지역 간 협력내용은 동부, 중부, 서부, 동북지구 4개 지역이 각각 지역조건을 감안하여 특색 있는 발전전략을 추구하되, 지역 이기주의와 보호주의를 타파하고 지역 간 상호 발전메커니즘을 형성하여 각 지역의 발전전략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제정책, 자금투입, 산업 발전 도모 등 부문에서 중서부에 대한 지원은 지속될 것이며, 동부지역을 우선 발전시켜 중서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것이다[14]. 동부지역의 세수, 산업의 복사효과 및 비교열위 산업의 이전 등이 필수적이다. 동북지역은 양질의 토지를 이용한 농업정책, 국유기업의 개혁을 위주로 한 정책이 더욱 구체화 될 것이다. 중부지역은 서부와 동부의 상품과 생산요소를 연계할 수 있는 교역중심지로 발전시킬 정책이 전망되며, 식량의 생산기지로서 발전시킬 정책도 예상된다.[15]

최근 개최된 중국정치 협상회의 “서부지역 대개발 추진” 주제 회의에서 왕진샹(王金祥)은 2005년 중국 서부지구 GDP가 2000년의 두 배에 해당하는

14) KIEP(2005)
15) KOTRA(2005)

333조 위안(약 US $4,200억)에 달하였다고 밝혔다.“제10차 5개년 계획(2001-2005년)”기간동안 서부의 GDP성장률은 연평균 11%였으며, 도시주민가처분소득과 농촌주민 순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10%와 6.8%였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건설교통, 수리, 에너지, 통신 등 서부지역에서 착공한 중대 프로젝트 항목은 누계 70개로 총 투자 규모가 약 1조 위안에 달하였다. 칭짱철도(青藏鐵道: 중국의 오지인 청해성과 서장지역을 잇는 대규모 철도건설 사업), 서전동송(西電東送: 서부 내륙지역에 발전소를 건설, 이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동부 연안지역으로 보내려는 프로젝트), 서기동수(西氣東輸: 서부지역의 천연가스를 상하이 등 동부 연안지역으로 연결하려는 프로젝트), 주요 수리시설(水利樞紐: 수재방지, 전력공급을 위한 댐 구축 등의 수리사업) 프로젝트 등 서부지역 개발을 상징하는 지표적인 프로젝트들이 건설되었다. 또한 서부지역에 신규 건설한 도로는 총 22.6만km, 완공된 철로는 4,000여 km에 달했다. 이 밖에 중앙정부는 310여 억 위안을 투입하여 농촌기초시설건설을 지원하고, 서부지역 모든 현의 도로 확충은 물론 농촌의 전기배전망 개선공사를 통해 99%의 서부 지방도시에 전력의 원활한 공급의 실현과 함께 3,660만 명의 식수부족, 식수안전성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또한 생태환경이 취약한 거주지역과 기본생활조건을 갖추지 못한 빈곤한 지역의 122만명 주민들의 이주를 진행하였다[16].

<표 11>에서는 중국에 대표적으로 낙후지역인 동북3성과 서부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경제적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서부지역은 중국에서 낙후되었다고 평가되는 지역으로 산업발전 면에서도 가장 뒤쳐진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서부지역은 공업 등 2차 산업의 비중이 낮은 반면, 농업 등 1차 산업의 비중이 가장 크다. 그래도 사천과 중경은 장강을 이용한 수운이 이용가능하고 교통도 발달한 편이라 서부대개발로 가장 발전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평가된다. 동북3성의 산업구조를 보면 1차, 2차, 3차 산업이 12.5%, 49.5%,

16) KOTRA(2006)

38.0%를 각각 기록하였다. 이는 중국전체 평균산업구조와 비교해볼 때, 2차 산업의 비중은 다소 높은 반면 3차 산업의 비중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17]

<표 11> 동북3성과 서부지역의 주요지표 비교

지 표	전국합계	서부 12성	동북 3성	전국 점유 비중(%)	
				서부 12성	동북 3성
면적(단위: 만㎢)	960	686.7	78.8	71.5	8.2
인구(단위: 만 명)	129,988	37,127	10,743	28.7	8.3
취업인구(단위: 만 명)	75,200	19,078	4,691	28.8	7.1
실업률(%)	4.2	4.1	5.3		
국내GDP(지역)	136,876	27,585	15,134	16.9	9.3
1인당 국내GDP(지역)	10,561	7,728	14,091		
수출입총액(억 달러)	11,546	367	480	3.2	4.2
수출액	5,933	206	243	3.5	4.1
수입액	5,612	161	237	2.9	4.2
소비물가지수(전년=100)	103.9	103.6	103.8		

자료: 중국통계연감(2006)
주: 동북3성(길림성, 요녕성, 흑룡강성)으로 중국의 대표적인 낙후지역

제3절 對중국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1) 對중국 외국인 투자유치 현황 및 특징(1979-2005년)[18]

중국은 1979년 제정된'중외합자기업법'에 따라 1980년에 4개 지역(광동성의 심천, 주해, 산두와 복건성의 하문)에 경제특구를 설치하여 사회간접자본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이 지역에 조세 및 기업관리, 기반시설 설치, 출입국 등에 있어 투자우대정책을 실시하여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지하게 시작하였다. 그러나 제도적 미흡과 정책에 대한 신뢰부족으로 당시의 외국인 투자는 매우 저조한 편이었다. 경제특구 설립으로 시작된 중국의

17) 국토연구원(2006)
18) 문승래(2001), 황재한(2006)등 논의 참조

특수지역 개방정책은 1984년 동부해안을 따라 있는 대련, 봉황도, 천진, 청도, 남통, 상해, 복건, 광주 등 14개 도시를 “연해개방도시”로 지정하고 이 도시들에 경제기술개발구와 경제개발구를 설치함으로써 더욱 확대되었다. 경제특구와 경제 기술개발구는 약간이 차이가 있었다. 이 차이는 자금 조달 문제로 경제특구는 중앙으로부터 개발 자금이 조달되어 행정적으로 타 지역과 분리되어 독자적인 경제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여지가 큰 반면 경제기술개발구의 경우는 주로 지방자금에 의해 개발되었고 제조업의 육성을 목표로 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1985년에는 장강, 주장, 민남의 삼각주에 새로이“연해 경제개방구”를 지정하여 개방하였다. 1986년에‘외국인투자 장려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제품수출형, 기술선진형, 외국인투자기업에 보다 큰 우대혜택을 부여하였다. 1988년에는 산동반도 및 요동반도를 포함한 연해지역 대부분을 경제 개방구로 확대 지정하였다. 또한 해남도를 해남성으로 승격하여 51번째 경제특구로 지정하였다.

1990년에는 상해포동지역을 보세(세금보호)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경제특구나 경제 개방구와 동일한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받도록 하였으며, 여러 가지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1992년에는 장강연안의 28개의 시와 현 그 밖에 8개 지구를 개방하고, 합비, 남창, 장사, 성도 등 11개 내륙성의 성도를 개방지역으로 선정함으로써 외국인 직접투자 지역을 내륙지방까지 넓혀 동부 연해지역과 중서부 내륙지방과의 지역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였다. 또한 1991년부터 시작한 27개 국가고기술 산업개방구를 1990년에는 25개 지역을 새로이 개방하여 총 52개 지역으로 확대하였다. 1995년까지 외국인투자는 급속한 성장을 나타내었고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 프로젝트의 평균규모 확대, 외국인투자 기업의 비중확대, 유럽・미국・일본 등 대량 투자국의 비중상승, 외국인투자 유치방식도 BOT(Build-Operate-Transfer)방식과 증권시장을 이용한 투자 등 새로운 투자방식이 출현하는 특징을 보였다. 1996년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우대정책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가공무

역방식을 통한 조세의 회피 또는 포탈을 방지하도록 하는 등 조세감면정책을 재조정 하였다. 1997년에 발생한 주변국가의 금융위기는 중국경제 외국인투자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1999년'외국인투자 상업기업 시행방법'을 제정하여 소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개방범위를 크게 확대하였다. 2002년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술개발과 혁신을 장려하고, 중서부지역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장려하였으며, 서비스산업 분야의 점진적 대외개방 확대와 유통업, 대외무역, 금융, 보험, 증권, 통신, 관광 등 외국인투자 분야 및 투자방식의 확대와 다양화를 모색하는 등 외국인투자 유치증대를 위한 새로운 유치정책들을 추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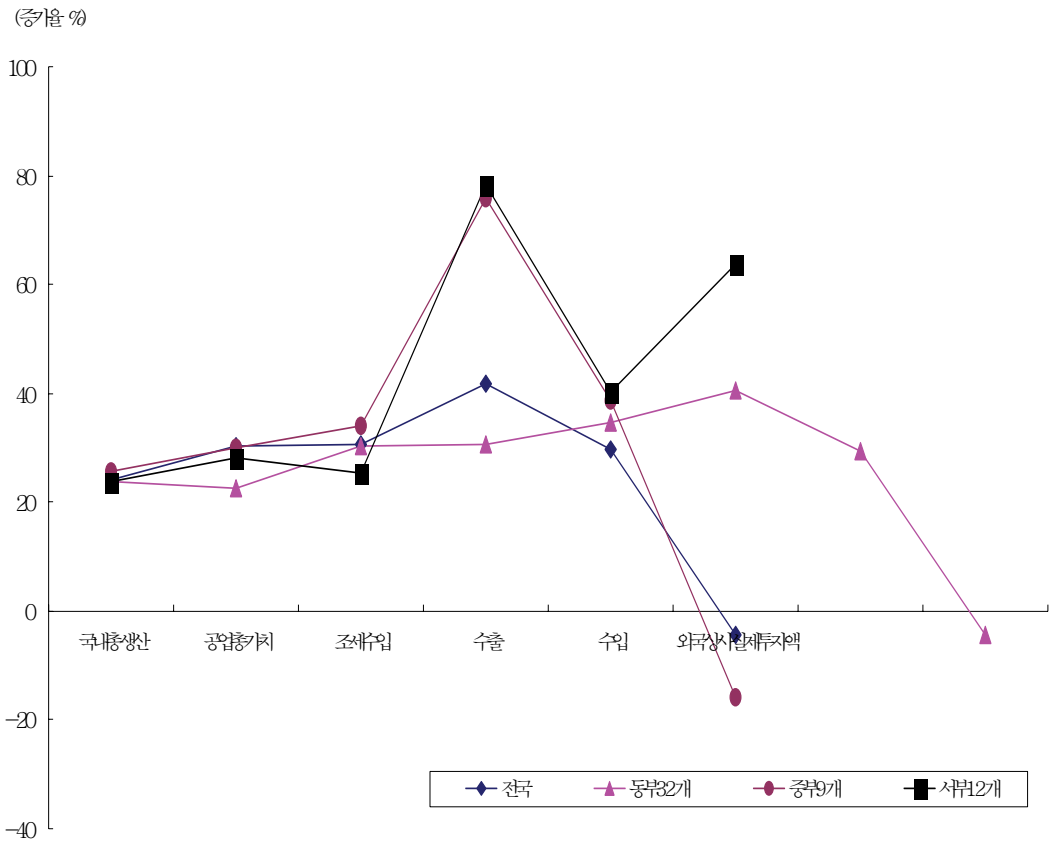
2002년 이후 중국정부는 경제정책의 목표를 경제구조와 산업구조 조정, 하이테크 발전 등에 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외자정책(外資政策)을 실시하고 있다. 즉, 외국인투자 이용의 역점을 단순한 자본의 보충으로부터 기술도입, 산업구조 고도화, 국제경쟁력 증강 및 국제분업 등으로 전환하고, 국유기업과 금융체계 개혁의 가속화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WTO가입을 계기로 중국은 외국인투자와 관련 외자(外資)기업법, 중외합작기업법(통상 三資企業法으로 칭함)을 개정하여 과거 수출의무조항, 중국제품 사용조항, 외환형평의무조항 등을 모두 철폐하였다. 2002년에 '외국인투자방향 지도규정','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을 정비하여 외국인투자 장려영역의 확대와 제한영역의 축소, 외국인 기업의 R&D센터 유지, M&A관련 규정 정비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중국은 <그림 4>에 나타나 있듯이 전국에 54개(동부32개, 중부9개, 서부13개) 국가급 경제개발구를 가지고 있다. 2006년 현재 전국적으로 54개 국가급 개발구의 GDP증가액은 전년 대비 24% 증가했다.[19] 이는 전국의 5%이다. 그 중 동부의 32개 개발구의 경우 8,143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23%증가했다. 서부지역의 13개 개발구의 경우 GDP는 661억 위안로 나타났다. 이

19) www.fdi,gov.cn

는 전년대비 34%증가했다. 중부지역의 경우는 1,053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26%증가했다.

<그림 4> 2005년 국가급 경제개발 주요경제지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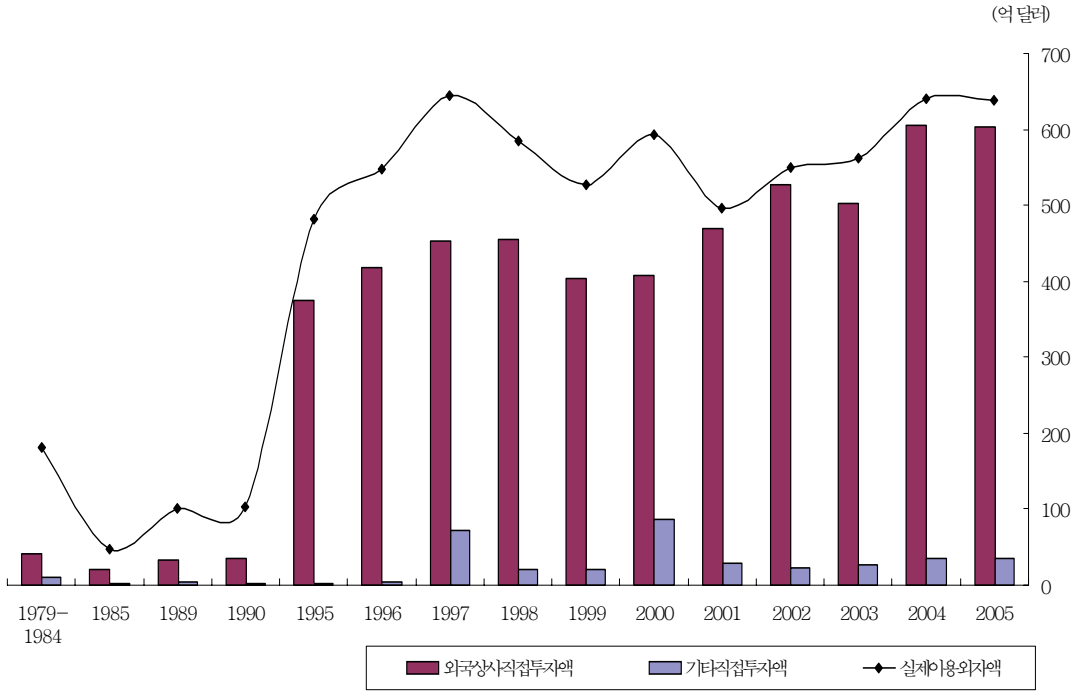


자료: 중국상무연감(2006)

1970년대 후반 중국 정부가 개혁, 개방을 추진한 이래 중국정부의 외국인투자 정책은 1990년대 말까지 양적확대에 주력하였다. 당시의 열악한 투자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경제특구와 세율인하, 수출장려책 등 우대정책을 실시하였다. 중국으로의 FDI 유입은 크게 4단계[20]로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제 1단계는 1979년부

터 1985년까지의 기간인데 이 시기에는 중국에서 FDI를 유치하기 위해 '중외 합자경영 기업법'을 발표하는 등 법·제도를 정비하고 4개의 경제특구를 두어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등 외자유입(外資流入)의 원활화를 기한 시기다. 제2단계는 1986년부터 1991년까지인데 실제로 이 기간에는 외국인 기업에 관한 법률을 공표하고 더 많은 외자유치(外資誘致)를 위해 세제상의 혜택과 경영상의 여러 장애를 제거해 주며 또한 해남성에 경제특구를 하나 더 만들었다. 제3단계는 1992년부터 2001년까지로서 이 기간에는 등소평이 남부경제특구를 순방하며 발표한 "개혁·개방"의 심화·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남순 강화"가 FDI유입에 큰 전환점을 만들었다. 제4단계는 2002년 이후로 중국이 WTO가입 후 이를 통해 FDI유입이 증가되는 시기이다.

<그림 5> 중국의 외자이용현황



자료: 중국통계연감(2006)

20) 최원익(2006) 재인용

<그림 5>는 중국으로 유입된 FDI의 추이를 제시하고 있는데 2000년에서 2001년 감소세를 보이다가 WTO가입 후에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외자도입(外資導入)초기 1979-84년에는 182억 달러로 그 중 외국인 직접투자는 41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1990년-1995년 사이 외자(外資)이용 총액은 103달러에서 481달러로 4배 이상의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 후 중국의 외자(外資)이용현황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5년 638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급격한 증가율을 보이는 해는 도입초기인 1984년에서 1985년로 71.9%의 증가율을 보였고, 1992년에서 1993년에 102%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2003년에서 2004년에는 14.1%의 증가율을 보였고, 2004년에서 2005년에는 0.4%의 소폭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다.

<표 12> FDI유입현황

(단위: 억 달러)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FDI	계약액	711.3	719.76	847.51	1169.01	1534.79	1890.65
	실행액	407.15	468.78	527.43	535.05	606.30	603.25

자료: 중국통계연감(2006)

중국의 외자(外資)이용현황을 <표 12>와 같이 외국인 직접투자를 실행액과 계약액으로 나누어 살펴보자. 2000년을 보면 계약금액은 711억 달러인데 실제 실행된 투자금액은 407억 달러로 계약금액과 실제실행금액에 차이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괴리상황은 몇 가지 요소로 설명[21]될 수 있다. 첫째, 주요한 외국인 직접투자 사업이 비교적 긴 회임시기(懷妊時期), 보통 10-20년 이상을 갖는 것을 들 수 있다. 즉 계약이 체결된 후 초기에는 주로 그 사업을 위한 기초시설(공장건설, 전기 및 용수시설, 심지어 도로건설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와 같은 투자는 보통 중국측 투자자

21) 김시중(1991)재인용

나 중국정부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단계에는 외국측 실제 투자는 크지 않다. 둘째로, 중·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전체투자는 상당한 기간을 통하여 몇 단계를 거치며 이루어진다. 즉 실제투자는 이 스케쥴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초기단계에 있어 계약금액과 실제투자액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셋째로 중국의 경우 여러 투자사업이 계약 체결 후 사업이 포기된 것도 있고 또한 초기단계에서 외국 투자자가 철수한 것도 상당수 있는 반면 이와 같은 실패사업이 통계에 포착되지 않기 때문에 통계상의 계약액은 실제 규모보다 과대평가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3>에서 보면 중국은 지난 16년간 개도국 중 FDI를 가장 많이 유치한 국가였다. 2005년 중국에서 이용한 FDI는 개도국이 이용한 전체금액의 1/3을 점하였고, 중국에서 이용한 FDI 총액은 2001년 세계 6위로부터 2005년 세계 3위로 상승하였다.

<표 13> FDI유치 순위 비교

(단위: 억 달러)

순위	2001		2005	
	국가	FDI	국가	FDI
1	미국	1,595	영국	1,645
2	벨기에-룩셈부르그	882	미국	994
3	영국	526	중국	638
4	네덜란드	519	프랑스	636
5	프랑스	505	네덜란드	436
6	중국	469	홍콩	359
7	스페인	280	캐나다	338
8	캐나다	275	독일	327
9	멕시코	268	벨기에	237
10	홍콩	238	스페인	230

자료: KOTRA(2006)

2005년 중국으로 유입된 외국인 직접투자 업종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의 외자(外資)이용 직접투자 계약건수는

28,928건으로 전체계약 금액의 65%인 8375억 달러를 보였다. 그 중 실제이용 자본은 425억 달러이다. 그 외 실제이용자본이 금융업 약 17%, 부동산 약 7%의 비중을 보였다. 산업별 유입된 외국인 직접투자를 살펴보면 <표 16>과 같다.[22)]

<표 14> 산업별 외자이용 현황

(단위: 억 달러)

업종명칭	계약건수	비중(%)	실제이용자본	비중(%)
1차산업	1,058	2.40	7.18	0.99
2차산업	30,027	68.21	446.92	61.72
3차산업	12,934	29.38	269.95	37.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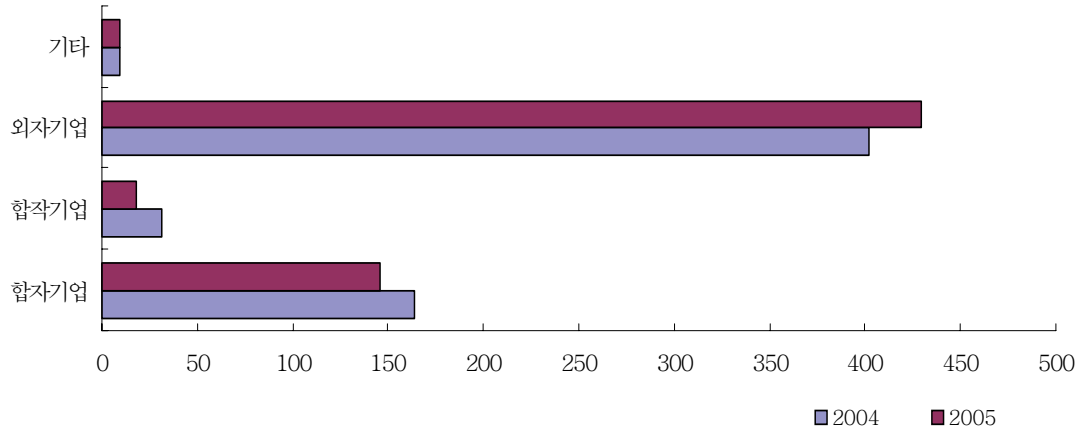
자료: 중국상무연감(2006)

투자 규모별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對중국 외국인 직접투자 형태는 합자기업(合資企業), 합작기업(合作企業)및 독자기업(獨自企業), 외자주식회사(外商投資株式制), 합자개발(合資開發)등으로 분류한다. <그림 6>에서 2004년 합자기업은 163.86억 달러, 합작기업은 31.12억달러, 독자기업은 402.22억 달러, 기타는 9.1억 달러의 투자규모를 보였다. 2005년에는 합자기업이 146.14억 달러, 합작기업이 18.31억 달러, 독자기업이 429.61억 달러, 기타는 9.18억 달러의 투자규모를 보였다.

22) 중국상무연감(2006)

<그림 6> 형태별 외자이용현황[23]

(단위: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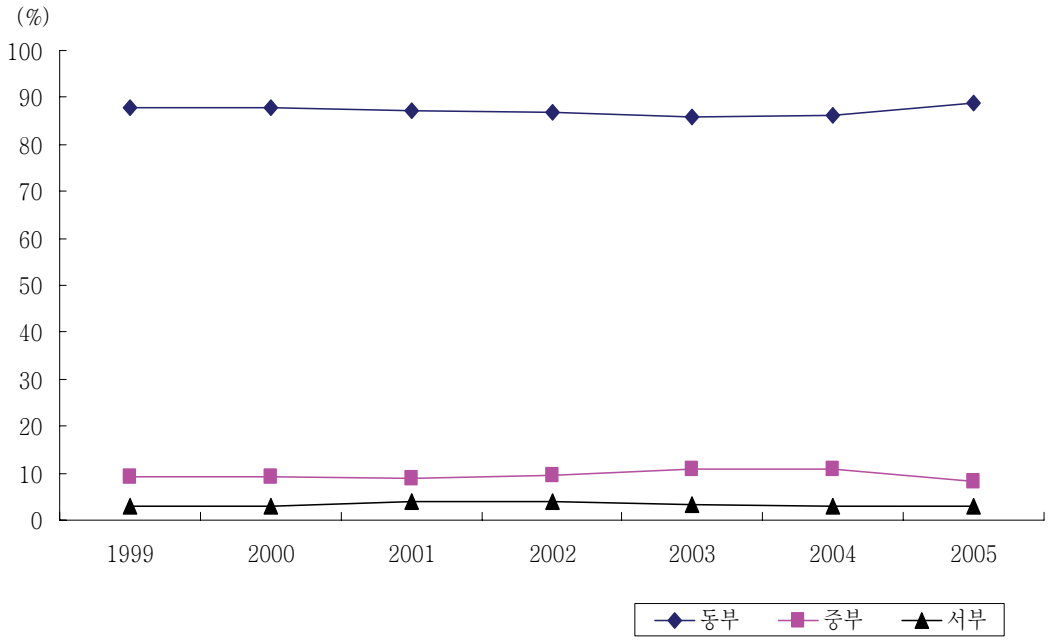


자료: 중국통계연감(2006)

중국은 지역별로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각종 정책을 실시하였으나 각종 정책을 실시하였으나 지역 간 격차는 줄어들지 않았다. <그림 7>에서 보면 지역별 외국인투자현황을 살펴보면 서부지역 대개발과 동북3성 재건 계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부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05년 동부지역의 외국인투자현황은 535.69억 달러로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에 88.8%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중부지역은 48.56억 달러로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부지역은 19억 달러로 3.1%를 차지하고 있다.

23) 외자(**外資**)기업(독자기업), 합자기업, 합작기업으로 나누었으며, 합자개발과 외자주식회사(**外資株式會社**)등 은 기타항목으로 분류하였다.

<그림 7> 지역별[24] 외국인 투자현황



자료: KOTRA 대륙별 국가정보

성시(省市)별로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15>와 같다. 2005년 외국인 직접투자액의 지역별 순위를 살펴보면, 1위에서 5위까지는 모두 역시 동부지역이다. 중국은 개방초기 우선 동부 연해지역 경제발전을 도모하여 상당한 경제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동·서부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자 2000년 서부 12개 지역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여 50년간 장기 개발하는 서부대개발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후 2003년 국무원은 서부대개발에 준하는 동북3성 재건 진흥정책을 발표하여 동북지역 노후공업기지의 진흥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11차 계획을 추진하면서 중국정부는 중서부의 균형발전을 본격화 하고 있다. 향후 정부의 지속적인 균형발전에 의해 중서부로

24) 본 연구에서 분류에 따라 동부지역(북경, 천진, 상해, 하북, 요녕, 강소, 저장, 복주, 산동, 광동, 해남), 중부지역(산서, 길림, 흑룡강, 안휘, 강서, 하남, 호북, 호남), 서부지역(중경, 귀주, 섬서, 감숙, 청해, 사천, 운남, 영하, 신강, 내몽고, 광서, 서장)이다.

의 외국인 투자가 점차 들어날 전망이다.

<표 15> 2005년 외국인 직접투자액 성·시·구 순위표

(단위: 억 달러)

순서	성· 시·구	외국인 직접투자액	순서	성· 시·구	외국인 직접투자액
	지방합계				184,167
1	상해시	66,756	16	내몽고자치구	1,852
2	절강성	18,391	17	안휘성	1,839
3	산동성	16,439	18	길림성	1,650
4	광동성	11,267	19	광서장족자치구	1,237
5	강소성	9,654	20	신강위구르자치구	857
6	하북성	8,059	21	新疆生産建設兵團[25]	788
7	북경시	7,582	22	강서성	783
8	복건성	7,231	23	하북성	589
9	하남성	5,862	24	하남성	538
10	흑룡강성	4,690	25	섬서성	327
11	천진시	4,423	26	해남성	180
12	요녕성	3,859	27	중경시	168
13	감숙성	3,657	28	청해성	100
14	사천성	2,751	29	산서성	72
15	운남성	2,506	30	영하자치구	60

자료: www.fdi.gov.cn

중국에 투자한 나라는 매우 많다. <표 16>에서 보여주듯이 홍콩을 선두로 하여 일본, 미국, 영국 등을 순서로 투자를 하고 있다. 2005년 투자액을 살펴보면 홍콩이 중국에 투자한 금액은 2,595억 달러로 전체에 41.7%를 차지한다. 계약 건수면에서도 254,059건으로 전체에 45.95%로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뒤따라 미국이 8.72%, 일본이 계약금액의 6.1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실제 실행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도 홍콩의 주도적인 위치는 재확인되며, 일본(8.58%)과 미국(8.21%)이 순서를 바꾸어 차

25) 신강위구르자치구내 대형 국영농장 운영주체

지하고 있을 뿐 비슷한 순서를 보이고 있다.

<표 16> 중국에 투자한 나라별 현황

(단위: 억 달러)

국가	건 수		계약외자 금액		실제사용외자금액	
	건 수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총계	552,942	100.00	12,856.73	100.00	6,224.25	100.0
홍콩	254,059	45.95	5,278.86	41.06	2,595.22	41.7
일본	35,124	6.35	785.69	6.11	533.75	8.58
미국	49,006	8.86	1,121.20	8.72	510.90	8.21
영국(군도)	14,011	2.53	1,034.36	8.05	459.17	7.38
대만	68,095	12.32	896.93	6.98	417.57	6.71
한국	38,868	7.03	703.24	5.47	311.04	5.00
싱가포르	14,367	2.60	532.05	4.14	277.44	4.46
영국	4,897	0.89	240.49	1.87	131.96	2.12
독일	4,762	0.86	214.20	1.67	114.39	1.84
케이만군도	1,429	0.26	178.22	1.39	86.59	1.39
프랑스	2,933	0.53	102.8	0.80	74.19	1.19
네덜란드	1,687	0.31	124.45	0.97	69.18	1.11
마카오	9,829	1.78	157.19	1.22	63.37	1.02
사모아	3,457	0.63	151.5	1.18	57.85	0.93
캐나다	8,900	1.61	169.57	1.32	49.89	0.80
기타	41,518	7.51	1,165.97	9.07	471.74	7.58

자료: www.fdi.gov.cn 2005년 12월까지 중국에 투자한 15위의 나라별 현황

(2) 외국인투자 유치제도의 변화

중국은 1990년대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에 각종 특혜를 부여해왔다. 가장 중요한 혜택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우대 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은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서로 다른 소득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다.[26] 현재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1993년 11월 국무원을 통과한"기업소득세잠정조례(企业所得税暂行

26) 기업소득세법이 제정되면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해 동일한 소득세가 적용될 전망이다.

条例)"를 적용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1991년 4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공포한 "외국인투자 기업과 외국기업 소득세법(外商投资企业和外国企业所得税法)"을 적용하고 있다.

2004년부터 소득세의 단일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기업소득세가 단일화 대면 중국 국내기업에는 현행보다 낮은 세율이, 외자기업(外資企業)에는 높은 세율이 부과되므로 외자기업(外資企業)들에게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세제혜택의 기준이 외자기업(外資企業)여부가 아니라 산업별, 지역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국 국내기업과 가격경쟁이 심한 산업에서의 외자기업(外資企業)에는 특별히 더 큰 타격이 예상된다.[27]

<표 17> 중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분야별 소득세율 우대 현황

(단위: %)

구분		전국 공통	경제 특구	국가급 경제기술개발, 보세구,서부지역	국가급 변경경제합작구	개방도시 및 지역
생산활동 기업		30	15	15	24	24
비생산활동 기업		30	15	30	30	30
특정 산업	3,000만 달러 이상 투자한 지식ㆍ기술집약사업	30	15	15	15	15
	에너지, 교통, 항구산업 등	15	15	15	15	15
	우대기간 만료후 생산제품 70%이상 수출 기업	15	10	10	12	12
	1,000만 달러 이상 투자, 사업기간 10년 이내 금융기간	30	15	15	15	15
지방소득세법		3	1.5	1.5	2.4	2.4

자료: KIEP(2007)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분야별 소득세율 우대 현황을 <표 17>에서 보여주는데, 중국내에서 국내기업은 33%의 세율이 일괄 적용되고 있지만, 외자기

27) KIEP(2007)

업(外資企業)은 입주 지역에 따라 15%, 24%, 33%로 다르다. 또한 국내기업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영업이익 발생연도 2년간 면세, 이후 3년간 50%, 감세의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WTO 가입이후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조항이 상당 부분 폐지되었다.[28] 또한 소득세 우대정책의 실시로 외자기업(外資企業)의 직접투자가 활발해진 반면, 외자유치(外資誘致)를 위해 중국정부가 실제 지불한 대가는 훨씬 크다는 평가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중국의 외자(外資)중시정책은 국내기업의 발전 잠재력에 손상을 주었고 내자기업의 외자화(假外資)[29]를 가속화시켜 자본의 해외도피에 대한 우려까지 낳게 되었다. 이에 따라 최근 중국 정부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정책기조는 과거 무차별적인 양적확대 정책에서 질적 효율성을 중시하는 선별적 투자유치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외자기업(外資企業)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기술이전 및 R&D 투자요구증가, 지방 정부의 특혜제공에 대한 중앙정부의 견제강화 등 각종 정책이 변화되어 발표되고 있다. 향후 중국의 외자정책(外資政策)의 핵심은 산업구조 고도화 및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전략적·선별적 투자유치 및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인 M&A 투자제한 및 기술이전 요구 증대를 할 것이다. 또한 외자기업(外資企業)에 대한 세율인상 및 법규 준수 등 사회적 책임 요구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30]

---

28) 이에 대해 외국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국내기업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다.

29) 기업들이 외자우대정책을 향유하기 위해 버진군도와 카이만 군도 등 제3국을 경유하여 투자하기도 하고 국유자산 개혁과정에서 일부 자금을 빼내 외자로 전환하여 재투자하는(假외자)현상이 부작용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30) 포스코(2006)

제3장 외국인 직접투자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외국인 직접투자[31]의 이론체계

(1) 외국인 직접투자의 개념

외국인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는 기업이 이윤을 획득할 목적으로 외국에 있는 어떤 기업에 대하여 경영참가 또는 경영권 획득을 위해 단독 또는 합작으로 투자하는 것[32]을 말한다.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형으로는 지점 또는 공장을 외국에 설치하거나, 자회사 또는 제휴회사를 외국에 설치하거나, 외국에서 자국의 기업을 경영하거나, 자국에 기업을 외국인이 설립하는 것 등이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공통적으로 그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통제권의 존재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정의를 보면 다음과 같다.

OECD는 “어떤 한나라의 거주인이 경영 통제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나라에 있는 재산과 경영 지분 기업 혹은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설립하던지 투자한 액수를 증액시키기 위한 것”[33]이라 정의하였고, 또 ROOT(1978)는 “경영 통제권을 갖는 해외 기업에 대한 장기지분 투자”로 정의하였다[34]. 따라서 경영지배나 통제의 목적이 아닌 단순한 배당금이나 이자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간 투자의 차이는 피투자기업에 대한 경영통제권의 행사유무에 있다고 할 수 있다.[35]

---

31) 외국인투자이론을 설명할 때 원래의 용어에 충실하게 위해 해외직접투자의 이론이라고 표기해야 함이 옳지만, 용어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직접투자로 단일화 시켰다.

32) 김정구, 『국제무역론』, 박영사, 2005, p.519

33) Hymer, S. H. *The int'l operations of National Firms*, (Cambridge, Massachusetts, MIT Press, 1976), p.2

34) Root, F.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Cincinnati, Ohio, Southwestern Publishing Co. 1978), p.509

35) 김은경(1997)재인용

(2) 외국인투자 결정요인

외국인 직접투자의 동기를 설명하려는 연구는 이미 상당해 축적되어 여러 이론들이 있다.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기업특유의 독점적 우위요소(firm specific monopolistic advantage)를 통하여 설명하려고 하는 산업조직론적 접근(Hymer, 1960; Kindlberger, 1969), 신상품이 개발되어 확산되어 가는 과정에 의거하여 설명하려는 상품수명주기 이론(Veron, 1966), 여러종류의 시장불완전성으로 인한 거래비용을 줄이는데 촛점을 맞춘 내부화이론(Rugman, 1980), 독점적 우위요소와 내부와 더불어 입지특유의 우위요소까지 포함하여 설명하려는 절충이론(Dunning, 1977, 1981)등이 있다. 이들 이론들 중 절충이론을 가지고 외국인 직접투자의 이론을 설명해보면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번째 요소로는 해당 투자 기업이 배타적으로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즉, 현지기업들이 소유하고 있지 못한 자산을 들 수 있다. 이들 기업특유의 독점적 우위요소의 예로는 특허기술, 제품차별화, 주요투입물에 대한 독점적 혹은 유리한 확보, 판매망의 장악, 경영기술, 자본조달의 용이성 등을 들 수 있다. 둘째로 위에서 언급한 독점적 우위요소 중에는 그것을 개별적으로 판매하는 것보다 그 거래를 내부화하여 거래비용을 줄일 때 훨씬 유리한 것들이 있다.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위에 언급한 자산거래에 있어 내부화에 따른 이익이 있으며 경영기술 같은 것은 그 정도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세번째로는 자산대상지역이 갖고 있는 특별한 요소, 즉 나라 간에 쉽게 거래하거나 이동 시킬 수 없는 요소들이 외국으로부터의 기업을 운영하는데 따르는 비용을 초과할 때에 해외에 투자할 유인이 생긴다고 할 수 있다.[36] 위의 세가지 요인 중 세번째 요인인 투자지역의 특수요소에 의거하여 외국인 직접투자의 결정요인을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시장지향(market-seeking) 외국인 직접투자이다. 현지시장 소비자의

36) 김시중(1991)

구매력과 관세 및 쿼터 등 수입국의 수출장벽을 회피하기 위해 기존의 수출시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거나 새로운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수입국이나 타지역시장의 중심지가 되는 국가에서 현지생산 및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방식이다. 둘째, (천연)자원지향형(resource-seeking) 외국인 직접투자이다. 이는 천연자원을 현지에서 확보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생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현지에 진출하는 것이다. 주로 광업, 수산업, 임업부문에 나타나는 유형으로 국내보다 타국산업에서 비교우위가 있을 경우 또는 장기적인 원자재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 발생한다. 셋째, 생산효율지향(efficiency-seeking) 외국인 직접투자이다. 기업은 이동성이 제한되는 토지, 노동 등 생산요소 가격이 자국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으로의 투자를 통해서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여 세계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지에 진출하는 것이다. 특히 임금이 저렴한 국가를 찾아서 투자하는 것을 노동지향형 외국인 직접투자라고 한다. 넷째, 전략적 자산 및 능력습득지향(strategic asset or capability-seeking) 외국인 직접투자이다. 선진국의 첨단기술이나 핵심역량을 획득하기 위해 해외에 진출하는 경우로 인수나 합작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다국적기업이 투자를 결정할 때 현지국 생산비용 및 시장수요 상황 등 경제적 요인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것이 <표 18>에 제시되어있다. 그러나 경제적 요인은 현지 정부의 단기적 노력으로 개선되기 어려운 반면 사회정책적 요인이나 사업편의 요인은 단기에 조정 가능한 변수이기 때문에 투자환경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정책수단으로서 호응도가 크다.

<표 18> 외국인투자 결정요인의 내용과 특성

속성	구분	세부내용	개선소요기간
근원적 요인	경제적 요인	·시장수요(시장규모, 1인당소득수준, 시장성장성, 수입장벽, 지역시장 접근성, 소비자 특성과 선호도) ·생산효율성(숙련 및 비숙련공의 생산성, 부품 및 원자재 비용, 교통/통신/공공설비 사용요금, 금융비용) ·자원의 가용성(석유, 가스, 광물, 원재료, 농지, 관광자원) ·전략적 자산습득(M&A 시장형성 및 용이성, 기술수준)	단기적 개선곤란
부수적 요인	사회 정치적 요인	·사회정치적 안정(국가위험도, 사회정서) ·노사안정(노조설립현황, 노조성향) ·민영화정책(정부투자기관의 민영화) ·법률체계(지적재산권, 경쟁 및 노동법, 조세행정, 기업신설 관련규정) ·국제협약(조세협약, 투자협정, FTA)	
	사업편의	·투자촉진활동(이미지제고 및 홍보활동) ·생활편의 환경(외국인 학교, 주거, 문화생활) ·기업경영환경(회계투명성, 관료주의, 부패) ·사후투자관리서비스(옴부즈만, 고충처리)	단기적 개선이 상대적으로 용이

자료: 『동북아시대의 전략적 외국인투자 마케팅』, 학현사, 임성훈 p.8

다국적 기업은 투자동기에 따라 개발 투자결정요인에 대한 평가비중을 달리한다. 자원추구형 투자의 경우 다국적기업은 현지국의 천연자원 활용의 용이성과 자원의 질적 수준을 투자결정에 우선순위로 고려하며 또한 정치사회 안정과 확고한 정부정책 기조를 중요한 투자결정요인으로 평가한다. 대개 자원개발사업은 현지국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지 정부정책의 안정성이 비중 높은 고려 요소가 되는 것이다. 생산효율지향형 투자의 경우에는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과 노동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투자결정요인이 된다. 저렴한 생산비용은 노동비용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인센티브, 공공시설 이용요금 및 수출입 규제여부 등도 비중 높은 결정요인이 된다. 시장추구형 투자의 경우에는 자사 생산제품에 대한 잠재소비시장 규모와 향후 시장성장성에 높은 관심을 가지며, 전략적 자산습득을 위한 투자는 보통 인수합병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현지국의 민영화 정책, M&A시장의 개방성, 전략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비능률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의 매물이 얼마나 많은가를 비중 높게 고려한다. 외국인 직접투자의 효과는 <표 19>나타나 있다.

<표 19> 외국인 직접투자의 효과

정(+)의 효과	부(−)의 효과
− 수출규제극복 및 비용절감을 통한 해외시장확보 효과 − 국제경쟁력의 강화효과 − 산업구조조정 촉진효과 − 선진기술 습득효과 − 자회사에 대한 수출증대효과	− 자본유출에 따른 국내투자 대체효과 − 공장수출에 의한 국내고용의 감소 − 국제수지의 악화 − 수출대체 및 역 수입으로 인한 본국으로부터의 수출 감소 − 기술 이전을 통한 부메랑 효과

자료: 조동성, 『국제경영학』, 학문사, 1986, p.227

(3)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형

외국인 직접투자의 형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직접투자는 소유지분비율에 대한 단독투자와 합작투자로 나눌 수 있다. 소유지분을 100%보유하겠다는 것은 투자가 자신의 투자회사 경영에 대해 100%통제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유구조 외에 또 다른 직접투자 형태를 나누는 기준으로는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데 공장 및 회사를 새로이 지어 진출하는 경우 특히 공장신설형 투자(greenfield investment)라고 부른다. 이와는 달리 M&A 시장의 자유화 등 환경변화와 시장지배력 확보, 규모

의 경제, 새로운 시장 및 역량습득, 신속한 시장접근 등 기업전략상 이유로 국가간 M&A 투자방식의 선호도가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제2절 외국인 직접투자의 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최원익(2006)은 세계 각국들이 對중국 직접투자에 어떤 변수들이 영향을 갖는지를 검토했으며, 특히 2001년 말에 중국의 WTO가입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투자결정요인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즉 1998년부터 중국이 WTO가입한 2001년까지를 하나의 샘플기간으로 하고, 2002년부터 2003년 까지를 또 다른 샘플기간으로 나누어 같은 방법으로 실증분석을 하였다. 설명변수는 지역의 총도로와 철로의 길이의 합, 전년도 명목임금, 그 성시의 GDP, 해당지역의 연간 총수입액, 지역의 피고용자 중에서 고중이상 학력자의 비율, 경제특구와 연해개방도시를 활용하여 FDI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검토하였다. 1998년부터 2003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한 결과는 지역의 인프라시설을 대리하는 총도로와 철도길이의 합과 그 성시(省市)의 GDP, 연간 총수입액, 경제특구(SEZ)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WTO가입을 기준으로 제1샘플기간(1998-2001년)을 활용한 결과 임금, 성시(省市)의 GDP, 연간 총수입액, 피고용자 중 고학력자 비율, 경제특구 등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샘플기간(2002년, 2003년)의 추정결과는 plooed OLS의 경우 인프라 시설을 나타내는 총도로와 철도길이의 합과 성시(省市)의 GDP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랜덤효과(Random effects) 추정방법에 의한 결과는 제1샘플기간에 유의한 것으로 되어 있던 임금, 연간 총수입액, 피고용자 중 고학력자비율 및 경제특구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고 오직 성시(省市)의 GDP만이 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만수(2002)는 경제위기 이전과 이후에 한국기업의 대중투자 전략에 변

화가 있었는지를 보다 분명히 하고 위해 경제위기를 전후한 시기에 한국기업의 중국 각 성(省)별 투자 결정요인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분석의 기간을 1993-2002년까지로 하고, 경제위기로 인해 한국의 대중투자가 큰 부침을 겪었던 1998년 또는 1999년을 경계로 두 시기로 나누어 투자결정 요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설명변수로는 해당 지역의 매년 경상GDP, 제조업 연평균임금, 피고용자 중 고졸이상의 비중, 단위 면적당 도로의 비율, 각 성의 주요 개발구수를 이용하여 성(省)별 투자액을 살펴보았다. 1994-1997년 자료에 대한 추정(a)에서는 전산업과 제조업 임금수준의 계수에 대한 추정치는 기대한 대로 음의 값으로 매우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2000년 이후의 추정(b)자료에서는 전산업과 제조업 모두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다. 소득수준에 대한 계수는 추정 a, b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양질의 노동력의 존재를 나타내는 고졸 이상의 비율에 대한 계수의 유의성은 추정(a), 추정(b) 모두 높게 나타났다. 제조업의 경우 2000년 이후 그 유의성이 약간 떨어져 있다. 이는 전반적으로 교육수준이 향상되었고 인력이동의 유연성도 커졌기 때문에, 일반 제조업 노동자 수준의 인력공급은 모든 지역에서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단위 면적당 도로율은 추정(a)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추정(b)의 제조업에 대해서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제조업 투자가 내수시장을 좀 더 고려하게 됨에 따라 물류 여건이 점차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각 성(省)의 정책환경을 표현하는 개발구의 수에 대한 추정 계수는 추정(a)에서는 전산업과 제조업 모두 높게 나타났으나 추정(b)에서는 제조업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중국의 정책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비록 경제기술개발구 등으로 입주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제조업에서는 개발구 등을 통한 투자유치가 아직까지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으나 여타 산업에서는 그 중요성이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추정결과 중에서 대중투자의 결정요인으로서 저 임금의 중요

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발견은 특히 비용절감형 투자에서 내수지향형 투자로 대중투자 전략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최근의 지적들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의를 갖는 변화이다.

문승래(2001)는 1979년부터 1999년까지 21년간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중국에 있어서 외국인 직접투자의 결정요인을 OLS방법에 의하여 분석하였다. 설명변수로 국내총생산(1990년 불변가격으로 측정된 CPI적용), 명목환율, 제조업 명목임금비율, 중국의 무역 가중평균 관세율, 실질경제성장율, 더미변수, 국내실질이자율(1년 미만의 기술개조 및 고정자산 대출이자율, CPI적용)을 가지고, 정치적 안정을 나타내는 해는 0, 정치적으로 불안정인 해는 1인 더미변수를 사용하여 외국인 직접투자액(1990년 불변가격으로 측정된 CPI적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1979-1999년 기간동안 중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외국인 직접투자 결정요인들은 광활한 내수시장, 빠른 경제성장율 및 값싼 임금이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위안화의 지속적인 평가절하와 다른 나라보다 높은 관세율도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내 이자율, 수입액, 국내의 정치적 안정과 관련된 더미 변수 등은 외국인 직접투자의 결정요인을 설명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치 않았다.

강설영(2003)은 1983년부터 2003년까지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중국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성장, 국내투자 및 수출입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았다. 경제성장효과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고정투자자산, 환율, 외국인 직접투자, 시차된 외국인 직접투자를 설명변수로 하여, GDP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국내투자효과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외국인 직접투자, 환율(명목), 차관증가치(국내신용의 대리변수), 시차된 고정투자자산를 설명변수로 하여, 고정투자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외국인 직접투자, 환율, 국내소비가격지수, 시차된 수출을 설명변수로 하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수입에 미치는 효과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외국인 직접투자, 환율, 국민소득, 시차된 수입을 설명변수로 하여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로는 중국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는데 외국인 직접투자가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가하면 국내투자도 증가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판단한다. 또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가하면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외국인 직접투자 자금의 유입에 의한 자본 수지의 개선에 외국인 직접투자가 커다란 공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경(1997)은 한국을 제외한 외국의 對중국직접투자추정식과 한국의 對중국 투자추정식을 설정하여 對중국 투자결정 요인을 살펴보았다. 한국을 제외한 외국의 對중국 직접투자 추정식은 1984-1996년을 표본기간으로 하여 환율, 소비자 물가지수(1985=100), 국내총생산, 도시노동자 평균임금, 도시지역 실업자수(만명), 연도별 기간추이가 외국인 직접투자액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로는 우선 한국을 제외한 외국의 對중국 직접투자 추정식에서는 환율요인은 유의성이 매우 높아 외국기업의 기술, 경영노하우 등을 제외한 단순 자본투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높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봄으로 외국의 對중국 투자기업들은 환율의 변화에 대해서도 재무적 관점에서 상당한 고려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인플레이션이 심하면 투자가 위축되고 물가가 안정되면 투자가 증대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타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다. 국내총생산의 경우 상당히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외국기업들이 對중국 투자에 있어 중국의 시장규모를 염두에 두고 투자한 것임을 반영한 것이라도 볼 수 있다. 임금은 그다지 투자의 결정요인이 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對중국 투자추정식에서는 1989-1996년을 표본기간으로 하여 환율, 소비자 물가지수(1985=100), 국내총생산, 도시노동자 평균임금, 도시지역 실업자수(만명), 연도별 기간추이가 외국인 직접투자액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로는 임금과

실업율이 주요 결정요인이며, 환율과 물가지수는 거의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기존연구의 차이점은 FDI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인 지만수(2002)는 1994-2002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최원익(2006)은 1998-2003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FDI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들 각 연구는 2002년 또는 2003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 29개의 성시(省市)를 기준으로 하여 먼저 1999-2004년까지 FDI의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이는 보다 최신 자료를 이용하여 변화를 측정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 하여 중국의 WTO가입 연도인 2001년을 기준으로 1999-2000년을 제1샘플기간으로 놓고 2001-2004년을 제2샘플기간으로 하여 이전과 이후의 결정요인과 변화를 살펴보았다.

제4장 실증분석

제1절 조사 방법

(1) 조사대상 및 변수선정

등소평 사후의 정치적 불안정 및 여러 가변적인 요소를 고려하기 위해 1999년를 시작으로 하여 가장 최근의 자료를 이용한 2004년까지를 분석기간으로 하였다. 조사지역은 29개 중국전역의 성시(省市)를 대상으로 하였다. FDI에 결정요인은 종종 수요 측 결정요인과 공급 측 결정요인으로 분류된다.[37]수요측면에 의한 결정요인은 현지국에 의하여 제공되는 정치적 안정성, 노동비용, 시장규모, 성장잠재력, 무역장벽, 경제통합, 투자인센티브, 환율, 문화적 · 지리적 접근성, 조세제도, 천연자원의 이용 가능성 등을 포함한다. 공급측면에 의한 결정요인은 투자기업이 누릴 수 있는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마케팅 능력(marketing capability), R&D집약도(R&D intensity), 과점반응(oligopoly reaction), 제품수명주기(product life cycle), 유무형의 자산(tangible and intangible assets), 그리고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정도 등으로 구성된다.

외국인 직접투자의 결정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변수를 선정하였다. 첫째, 엄청난 규모의 잠재적 내수시장과 빠른 경제성장을 하고 있다는 가정을 하고 이를 중국의 경우로 살펴보기 위해 각 성시(省市)의 GDP를 설명변수로 포함시켰다. 둘째, 투자기업의 목표를 이윤극대화로 본다면 제조비용의 극소화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은 투자유치국의 저렴한 임금을 이용하는 것이 상례이므로 임금도 설명변수에 포함하였다. 분석과정에서 투자와 명목임금 사이의 잠재적인 동시성 편의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년

37) 유호종(1995) 재인용

도 명목임금[38]을 사용하였다. 셋째, 해당 지역에서 양질의 노동력을 조달할 수 있느냐도 중요한 투자결정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양질 노동력의 양을 반영하는 변수로 성시(省市)별 피고용자 중에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자의 비중를 사용하였다. 넷째, 투자유치국의 무역개방정책에 의해 내수시장이 개방되고 그에 따라 수입이 증가하는 경우 외국기업은 투자유치국에 대한 직접투자보다는 수출을 선호하여 직접투자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투자유치국의 지속적인 수입자유화 정책과 이에 따른 수입증가는 경쟁증가 등으로 인한 외국기업의 채산성을 약화시켜 투자유치국에 대한 직접투자증가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즉 투자유치국의 수입자유화 정책과 그에 따른 수입증가는 직접투자 창출효과와 직접투자 억제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각 성시(省市)의 수입액을 설명변수에 포함시켰다.[39] 다섯째, 경제활동이 직접화 되어 있는 정도는 FDI유입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원활한 생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통, 전력, 통신, 용수 등 기본 설비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내수시장 개척이라는 측면에서도, 해당 지역의 교통 및 물류 인프라 수준은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당지역의 기초설비 수준과 내수시장 개척이라는 두 측면에서 그 지역의 단위 면적당 도로비율[40]을 활용한다. 여섯째, 중국은 각 지역에 경제특구, 개발구 등 지역을 지정해 여기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조세 등 여러면에서 해택을 주고 있다. 여기서는 각 성시(省市)의 주요 개발구 수와 해안개방도시를 지역간 정책환경의 차이를 반영하는 지표로 사용하였다.[41][42] 통계자료는 중국국가통계국의 중국통계연감 각 년판과 상무국의 상무연감, 중국대외경제통계연감, 중국노동통계연감 등을 이용하였고 실증분석을 위한 통계프로그램은 sas 9.1을 사용하였다.

---

38) 최원익(2006)
39) 문승래(2001)
40) 지만수(2002)
41) 지만수(2002)
42) 중국의 국가급 개발구는 54개로 동부지역에 32개, 중부지역에 9개, 서부지역에 13개가 있다.

투자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변수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설명변수의 소득과 임금은 중국국가통계국의 중국통계연감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정책변수로 사용된 각종개발구수(국가급 개발구, 해안개방도시수)는 상무연감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양질의 노동력은 중국노동통계연감 각 년판을 사용하였으며, 종속변수인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중국통계연감과 중국대외경제연감[43]을 이용하였다. 또한 종속변수인 외국인 직접투자액을 포함하여 소득, 각 성시(省市)별 GDP, 임금에 로그를 취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20> 외국인 직접투자 결정요인 변수

변수	설명	단위	비고	기대
소득(GDP_{it})	총생산액	억 위안(로그)	i 성시의 t년도 값	+
임금($wage_{it-1}$)	연평균 임금	위안(로그)	i 성시의 전(前)년도 값(t-1)	−
양질 노동력($Emply_{it}$)[44]	피고용자 중 고졸이상비율	%	i 성시의 t년도 값	+
인프라($Roardail_{it}$)	면적당 도로	km/평방km	i 성시의 t년도 값	+
정책(SEZ_i)	국가급 개발구	개	2006년 값을 사용	+
정책($OCCity_i$)	해안개방도시	개	2006년 값을 사용	+
대외개방정도(IM_{it})	수입액	만 달러(로그)	i 성시의 t년도 값	−
외국인 직접투자($lnFDI_{it}$)	외국인 직접투자액	만 달러(로그)	i 성시의 t년도 값	

43)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1999-2003년까지 수치는 중국통계연감 각 년판, 2004년 수치는 중국대외경제연감의 수치를 이용하였다.
44) 해당자료의 2000년 값의 수치를 구할 수 없어 2000년 수치에 2001년 값을 사용

제2절 실증 분석

이론적으로 투자유치국(host country)에 있어 외국인 직접투자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많다. FDI유치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제시하여야 하는지 또한 어떤 요인들이 작용하지에 관한 끊임없는 연구가 계속되어왔다. 많은 연구들은 특히 FDI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춰왔다. 문승래(2001)는 중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외국인 직접투자 결정요인들은 광활한 내수시장, 빠른 경제성장율 및 값싼 임금이라고 하였다. 또한 중국 위안화의 지속적인 평가절하와 다른 나라보다 높은 관세율도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지만수(2002)는 제조업과 전산업에 대한 성시(省市)별 투자액의 결정요인에서 1997년 발생한 경제위기 이후에는 저렴한 임금이 더 이상 유의한 투자결정요인이 아님을 발견하였고, 중국내수시장의 중요성을 표현하는 각 성시(省市)의 GDP는 경제위기 이후에도 유의한 투자결정요인이라 하였다. 그밖에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노동자비율로 표현되는 양질의 노동력 공급이 유의한 투자결정요인이며, 각 성시(省市)의 인프라 수준을 표현하는 면적당 도로율의 중요성도 커졌다고 하였다. 또한 개발구 등을 통해 주어졌던 각종 정책적 특혜는 중국의 투자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 외에 FDI 결정요인에 있어 최원익(2006) 등의 논의를 참조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1) 분석모형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이용한 모형은 다음과 같다.

$$\ln FDI_{it} = \beta_0 + \beta_1 GDP_{it} + \beta_2 IM_{it} + \beta_3 wage_{it-1} + \beta_4 Emply_{it} + \beta_5 Roardail_{it}$$

$$+ \beta_6 sez_i + \beta_7 Occity_i + a_i + \varepsilon_{it} \text{----------(1)}$$

조사기간은 1999-2004년이며, 분석대상은 29개 중국전역의 성시(省市)를 포함 하였다. 본 연구에서 패널자료를 활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45]는 설명변수들과 상관되어져 있는 생략되거나 관측되지 않는 변수들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있다.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여 모형화하게 되면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관측되지 않는 요소(unobserved factors)들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그 하나는"상수적인 것(unobserved effect)"이고 다른 하나는"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여기서 상수적인 것의 의미를 연구에 적용한다면 각 성시(省市)마다 독특하지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 요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어떤 성시(省市)에서 FDI를 용이하게 하는 기후조건, 지리적인 특징, 특정지역의 소비자 성향, 근로자의 기질, 측정하기 어려운 세금구조, 법집행노력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측정해서 변수화 하기 어려워 일반 시계열(time series)이나 횡단면(cross-sectional) 데이터에서는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들이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는 것은"은 일반적인 시계열 자료 모형에서 볼 수 있는 error term을 말한다.

(2) 분석의 결과

$$y_{it} = a_0 + \beta_1 x_{it1} + \beta_2 x_{it2} + ... + \beta_k x_{itk} + \alpha_i + \mu_{it} \text{----------(2)}$$

45) 최원익(2006)

여기서 α_i에 대해 어떤 가정을 하고 추정하느냐에 따라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과 랜덤효과모형(random-effect model)으로 나누어지는데 여기서는 α_i가 고정된 값을 갖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확률분포를 따르고, 독립변수들과 상관관계가 없다고 가정하고, α_i에 대한 특별한 분포 가정은 하지 않은 채 GLS 추정을 하는 랜덤효과 모형을 채택하였다. 이 방법은 고정효과모형이 다룰 수 없었던 시간불변(time invariant)의 독립변수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랜덤효과모형으로 분석하였다. 고정효과모형으로 추정할 경우 α_i에 있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국가급개발구(SEZ)나 해안개방도시(Occity)와 같은 더미변수들을 누락시키므로 설명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cov(X_{it},α_i)=0 조정하에 랜덤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결과로 단순한 비교를 위해 OLS추정치를 랜덤효과 추정치와 함께 제시할 것이다.

주요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9개 성시(省市)의 평균임금은 10,272위안이며, 평균 각 성시(省市)의 GDP는 4,047위안이다. 또한 성시(省市)의 평균면적당 도로의 비율은 38%를 나타내고 있다. 성시(省市)의의 취업자중 고등학교졸업 이상의 비율은 21%를 나타내고 있다. 자세한 수치는 <표 21>와 같다.

<표 21> 주요변수들의 기초통계량

변 수 명	평 균	표 준 편 차
성시(省市) 임금(위안)	10,272	3,958
성시(省市) GDP(위안)	4,047	3,200
성시(省市) 수입액(달러)	963,299	2,047,983
성시(省市) 면적당도로비율(%)	0.38	0.23
성시(省市) 외국인 직접투자액(달러)	166,353	260,424
성시(省市)고졸이상 노동자비율(%)	21	9.8

1. 전기간 추정결과: 1999-2004년

OLS에 대한 추정결과와 랜덤효과추정 결과는 대체로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표 22>에서 살펴보면 OLS추정시 각 성시(省市)의 GDP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값을 보였다. 각 성시(省市)의 GDP는 랜덤효과의 결과 역시 기대한 대로 (+)의 매우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임금의 경우도 1%의 수준에서 기대한 대로(-)의 매우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Cheng and Kwan(2000)과 같은 결과로 높은 임금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중국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결정요인에 있어서 저렴한 임금이 중요한 유인으로 작용하였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인프라시설의 경우 외국인 직접투자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예상한 바대로 중요한 요인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Fung, Iizaka and Siu(2003)과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 외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것으로 기대한 해안개방도시와 경제개발구가 외국인 직접투자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

<표 22> 투자결정요인 추정결과(1999-2004년)

	Pooled OLS	Random Effects
상수	4.67 (2.00)	10.07 (1.70)
GDP	0.85*** (0.10)	1.05*** (0.19)
임금	-0.72*** (0.25)	-1.03*** (0.26)
수입액	0.39*** (0.07)	0.03 (0.05)
인프라	2.65*** (0.38)	2.78*** (0.56)
양질의 노동력	-0.04 (0.01)	0.02 (0.01)
국가급 개발구	-0.10 (0.16)	0.47 (0.32)
해안개방도시	0.13 (0.14)	0.51 (0.32)
R-sq	0.82	0.46

주: *, **, ***은 각각 10%, 5%, 1%의 유의수준을 의미함.

2. WTO가입 이전과 이후 기간의 추정 결과

중국으로의 FDI유입은 중국정부의 중요한 정책이 있을 때마다 변화의 폭을 달리해왔음을 다양한 연구 결과가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1년 말[46] 중국의 WTO가입 이전과 이후에 FDI유입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중요도에 대해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자료를 1999-2000년을 제1샘플기간으로 하고 WTO에 가입한 이후인 2001년부터 2004년을 제2샘플기간으로 해서 결정요인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1샘플기간(1999-2000년)을 활용한 결과 <표 23>와 같이 각 성시(省市)의 GDP, 임금, 수입액, 인프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전 샘플기간(1999-2004년)과 비교해 볼 때 각 성시(省市)의 GDP, 임금, 인프라 시설은 여전히 FDI유입에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GDP의 영향력이 약해진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정책간의 변수를 나타내는 국가급 개발구와 해안개방도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2샘플기간(2001-2004년)에 대한 추정결과를 <표 23>에서 살펴보면 OLS 추정결과 각 성시(省市)의 GDP, 수입액, 인프라 시설이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며, 랜덤모형 추정방법에서는 제1샘플기간에 유의했던 각 성시(省市)의 GDP, 임금, 인프라시설이 제2샘플기간에서 여전히 유의하게 나왔다.

이런 결과의 함축적인 의미를 조사기간(1999-2004년), 제1샘플기간(1999-2000년), 그리고 제2샘플기간(2001-2004년)의 결과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임금은 예상대로 전 기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WTO가입을 기준으로 나눈 각각의 샘플기간에도 여전히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성시(省市)의 GDP는 모든 샘플기간들에서 FDI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WTO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피고용자의 학력수준의 경우 조사기간(1999-2004년)

46) 최원익(2006)에서는 WTO가입 전후의 연구결과를 비교함에 있어서 2001년을 가입 전으로 기간을 분류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가입하는 2001년에 이미 여러 투자유인을 가질 것으로 간주하여 가입 후 기간으로 분류하였다.

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샘플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정도를 나타낸 수입액의 경우 제1샘플기간에는 양(+)의 효과를 가졌지만 제2샘플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왔다. 그리고 국가급 개발구 및 연해개방도시의 경우 여러 가지 정책적 투자유인으로 FDI유입에 강력한 영향력을 가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전 기간에 걸쳐 여전히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투자결정요인 추정결과(샘플기간구분)

	제1샘플기간(1999-2000년)		제2샘플기간(2001-2004년)	
	Pooled OLS	Random Effects	Pooled OLS	Random Effects
상수	6.72 (2.47)	13.27 (5.57)	2.93 (3.18)	9.5 (2.65)
GDP	0.41* (0.21)	0.58** (0.25)	0.98*** (0.13)	1.11*** (0.21)
임금	-1.64*** (0.61)	-1.63** (0.69)	-0.54 (0.35)	-1.01*** (0.35)
수입액	0.70*** (0.17)	0.54** (0.22)	0.33*** (0.07)	0.01 (0.06)
인프라	3.01*** (0.77)	3.67*** (0.85)	2.38*** (0.45)	2.70*** (0.74)
양질의 노동력	-0.01 (0.01)	-0.009 (0.01)	-0.0001 (0.01)	0.01 (0.01)
국가급 개발구	-0.17 (0.20)	-0.10 (0.33)	-0.05 (0.20)	0.49 (0.36)
해안개방도시	0.25 (0.17)	0.22 (0.28)	0.07 (0.18)	0.39 (0.36)
R-sq	0.82	0.78	0.82	0.52

주: *, **, ***는 각각 10%, 5%, 1%의 유의수준을 의미한다.

제 5장 결 론

개방화, 규제완화, 자유화, 상호의존과 경쟁증대 등 세계경제의 빠른 구조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외국인 직접투자는 그 어느 나라에서든 자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체질강화 및 국제수지 안정 등에 크게 공헌할 수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OECD에서 지적한 대로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위해 필사적인 유치전쟁(bidding war)을 벌이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상식을 벗어난 엄청난 수준(exorbitant level)의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47)]

FDI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생산·제조·공정에서 판매·유통까지 중국 내수 소비시장 공략을 목표로 진출하는 경우로 미국과 유럽 등 서방국가들의 일반적인 진출형태이다. 다른 형태로는 저임노동력을 이용한 생산비 절감을 목적으로 중국을 생산거점으로 주로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로 한국, 홍콩, 대만 등 인근 아시아 국가들의 일반적인 진출형태가 있다. 중국에 도입된 외국자본은 국내의 자금부족을 해결해주고 첨단기술과 선진 경영방식의 이전을 통해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양적확대에 치중해온 노동집약적 경공업 중심의 투자유치정책은 무분별한 경쟁을 유발, 경기과열을 조장하고 산업구조의 왜곡을 심화시켰으며, 연해지역 우대정책은 지역발전 격차를 확대시켰다. 이에 따라 중국은 경제정책기조를 성장위주에서 안정과 효율성 제고방향으로 전환하여 1995년부터 외국인투자를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선별적 외자도입(外資導入)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외국인 투자유치정책의 변화는 등소평 사후의 정치적 불확실성과 긴축정책, 토지, 임금비용 인상 등 현지 경영여건 악화 등과 결합하여 대중 외국인투자가 감소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47) 문승래(2002)재인용

이에 따라 중국에서는 외자(外資)규모, 시장독점 폐해, 산업통제력 상실, 기술종속, 금융위기 및 이에 따른 거시 경제 전반의 불안정화 가능성 등을 이유로 FDI 유입에 대해 우려하는 견해[48]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중국은 FDI의 도입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외자도입(外資導入)의 효과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중국의 FDI결정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중국이 지난 1979년 경제개방에 착수,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하고 적극적인 외자유치(外資誘致)를 하여 비약적인 성장률을 보여준 현황을 알아보았다. 이렇게 중국경제를 고성장으로 견인한 FDI의 결정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중국 29개의 성시(省市)를 대상으로 1999-2004년까지의 조사기간 동안 외국인 직접투자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1999년부터 2004년까지의 패널자료를 통해 중국으로의 FDI유입의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들을 알아보고, FDI유입에 큰 변화를 줄 거라고 예상되는 중국의 WTO가입을 기준으로 제1샘플기간(1999-2000년)과 제2샘플기간(2001-2004년)으로 나누어 FDI결정요인을 검토하여 보았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1999-2004년을 조사기간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각 성시(省市)의 GDP는 예상한 바와 같이 양(+)의 매우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임금의 경우도 1%의 수준에서 예상한 바와 같이 음(-)의 매우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높은 임금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중국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결정요인에 있어서 저렴한 임금이 중요한 유인으로 작용하였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인프라시설의 경우 외국인 직접투자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예상한 바와 같이 중요한 요인임을 보였다. 그 외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가질 것으로 예상한 해안개방도시와 국가급 개발구가 외국인 직접투자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48) 중국경제 현안 브리핑(04-23호/10월 21일)

나왔다. 제1샘플기간(1999-2000년) 그리고 제2샘플기간(2001-2004년)의 결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임금은 예상대로 조사기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WTO가입을 기준으로 나눈 각각의 샘플기간에도 여전히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성시(省市)의 GDP는 모든 샘플기간들에서 FDI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WTO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피고용자의 학력수준의 경우 조사기간(1999-2004년)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샘플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정도를 나타낸 수입액의 경우 제1샘플기간에는 양(+)의 효과를 가졌지만 제2샘플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왔다. 그리고 국가급 개발구 및 해안개방도시의 경우 여러 가지 정책적 투자유인으로 FDI유입에 강력한 영향력을 가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전 기간에 걸쳐 여전히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對중국 FDI의 유입은 꾸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 정부는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 간의 동등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선별적인 외자유치(外資誘致)정책을 지속할 전망이다[49]. 중국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의 적극적 유치정책으로 외국인 직접투자와 관련된 제도 및 법규를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하고 종합적이면서도 체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경우 외국인 직접투자 관련 법규와 규정이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 해석의 여지에 따라 관료의 자의성이 개입되고 개인적인 관계에 의하여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상당히 자주 있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는 “Mafan(it's too trouble)”, “Meiyou(we don't have it)”, “Meibanfa(we can't do anything about it)”, “Meiguanxi(it does not matter)” 으로 4M이다.[50] 그 외에 새로운 방식

49) 张建刚(2005)
50) 문승래(2001)재인용

을 통하여 외자(外資)이용의 규모와 품질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즉 그동안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제조업 중심의 유치에서 탈피하여 고부가가치의 첨단산업과 서비스업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일반제조업부터 인프라산업, 하이테크산업까지 외자(外資)가 유입되고 있는 현재 이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WTO 가입이후 대다수 서비스 산업에 대한 개방을 이행하였고 개방수준도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중국의 서비스산업이 빠르게 발전하지 못한다면, 외국의 거대규모의 서비스업계들이 중국의 서비스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형성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조사기간 동안 중국으로의 FDI유입에 어떤 결정요인들이 있었는지를 검토함과 동시에 중국으로의 FDI유입에 중요한 전환점이 된 WTO가입을 계기로 FDI유입의 결정요인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FDI를 제조업과 비제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 또는 노동집약산업과 자본집약산업부문으로 나누어 검토하지 못했다. 따라서 미래의 연구는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훌륭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김미순,『중국서부개발과 한국기업의 투자전략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원 국제경영대학원 국제경영학과, 2001

김승준,『대중국 직접투자 중소기업의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1996

김시중,「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유치와 한국의 진출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정책연구』, 제7호, 1991

김원배 외 5인,「중국 동북3 개발이 북·중국 접경지역 산업 및 기반시설
개발에 미치는 영향분석」, 국토연구원, 2권 22호, 2006

김은경,『中國의 外資誘致政策과 對中國直接投資決定要因에 관한
硏究』,경기대학교대학원 무역학과, 1997

김익수,「중국 外資誘致政策의 변화와 對中 투자구조의 개선」,
『中蘇硏究』, 통권 68호, 1995

_____,「중국 기업의 국제화 전략: 추진배경, 기대효과 및 한계」,
『현대중국연구』, 제7권 제2호, 2006

김재원,「중국의 FDI 유입현황 및 향후전망」,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지역정보, 2007

김주영,「중국 지역경제권 이렇게 공략하자」,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06

김중관,『중국통상』,두남, 2003

김창도, 이대우, 정철호,「중국의 외국인투자 정책변화와 시사」,
POSRI CEO REPORT, 포스코경영연구소

남수중,「중국의 외국인투자 환경 변화와 투자리스크 평가」,
국제금융센터, 한국중국학회, 2003

KIEP 북경사무소,「FDI에 대한 부정적 견해의 문제점」,
『중국현안브리핑』, 제23호, 2004. 10. 21
_____,「중국의 외자기업에 대한 각종 세수우대와 그 부작용」,
『중국현안브리핑』, 제14호, 2006. 9. 1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년 세계경제 지역별 10대 이슈』, 2007
대한무역공사 동북아팀,「중국 제11차 5개년 개획 내용과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 2005. 11. 8
문승래,「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결정요인 분석(1979-1999)」,『경제교육연구』, 제7호, 2001
_____,「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투자경향과 패턴분석」,『전문경영인연구』, 제5집 제1호 2002년 3월 30일
유호종,『韓國企業의 對中國直接投資 決定要因에 관한 實證的 硏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1995
윤기관,「중국의 WTO 가입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전략변화와 한국기업의 대중투자 촉진 방안」,『무역학회지』 제28권 제4호, 2003
이승신,「2006년 중국경제 발전현황 및 평가」, 한국무역협회 무역사무소, 중국경제 동향 보고, 2007. 1. 26
임성훈, 『동북아시대 전략적 외국인 투자 마케팅』, 학현사, 2004
정상은,「21세기 중국의 大役事, 西部大開發」,삼성경제연구소, 2003
_____,「중국 내수시정 공략의 성공조건」,삼성경제연구소, 2004
_____,「중국 거시경제정책의 두 가지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 중국경제 현안 브리핑 7호, 2005
지만수,「한국기업의 대중국 권역별 진출과 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 14호, 2002.
_____, 「중국의 제11차 5개년 계획건의안의 주요 내용과 특징」, KIEP세계지역연구센터, 2005

최병철,「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도입정책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사회과학 논집』제5권 제3호, 1996
최상래, 김현지「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무역학회지』, 제26권 제5호, 2001년 12월
최원익,「중국의 WTO 가입이 중국내 FDI입지 결정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무역학회지』, 제31권 제1호, 2006년 2월
황재한,「중국의 외국인 투자정책 변화와 대응전략」,
『동북아경제연구』, 제18권 제3호, 2006
Bevan, Alan and Estrin, Saul, “The Determinan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ransition Economies," *The Center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Discussion Papers no.2638, 2000
Fung, K. C., Iizaka, H. and Siu A., "Japanese Direct Invesment in China," *China Economic Review*, vol.14, 2003
Leonard K. cheng and Yum K. Kwan,“What are the Determinants of the Locat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The Chinese Experinece,”*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51, 2000
Tai-Yuen Hon, Che-Cheong Poon, Kai-Yin Woo, "Regional Distribution of Direct Investment in China," *The Chinese Economy*, vol.38, no.2 , pp.56-87, March-April 2005
范燕萍, 「一种已用外商直接投资的新方式」, 『中国机电工业』, 2006
国家统计局人口和就业统计司·劳动和社会保障部规划财务司, 『中国劳动统计年鉴』,中国统计出版社, 2000-2005
潘镇, 「外商直接投资是否促进了中国的科技进步－来自各区的经验证据－」,
『中国软科学』, 2005
曲守林, 王颖颖, 「外商对华直接投资的影响因素」,『财经界』, 2006
唐勇, 『外商直接投资对中国经济的效应分析』,西南民族大学学报,

人文社科版，2006
余方针，「外商直接投资与中国经济发展的关系及他协调研究」，
『企业经济』，2006
魏雪莲，「外商直接投资的区位选择及他对中国区域经济的影响」，
『财经界』，2006
张东山 外，「外商直接投资对上海经济影响的实证分析」，『经济论坛』，2006
张建刚，「外商直接投资增长趋势减缓成因分析」，『经济问题』，2006年 第2期
中国商务年鉴编辑部委员会，『中国商务年鉴』，中国统计出版社，2006
中国统计局贸易外经统计司编，『中国对外经济统计年鉴』，
中国统计出版社，2005
中华人民共和国统计局，『中国统计年鉴』，中国统计出版社，2000－2006

ABSTRACT

Empirical Analysis about the affecting the Determinant Factors of FDI in China

Park, Min-Sook
Department of Economics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China has endeavored to attract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after promoting "reforming·opening" in 1979. By attrac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China can earn capital, technology, and Know-how from developed countries, and simultancously attempt long-term and short-term economic growth.

This paper focuses on the change of the degree of importance of the determinat factors of FDI toward China before and after WTO affiliation of China. Two separate estimations are performed to the data of 1999-2000 and 2001-2004 respectfully to identify the similarity in the deferminants of investment between pre and post WTO affiliation of China.

The findings are as follows: Before WTO affiliation of China, GDP of each provinces, Roadrail, wage, the degree of openness infuenced significantly the inflow of FDI. but after WTO affiliation of China, GDP of each provinces, Roadrail, wage infuenced significantly the inflow of FDI.